



2010 ANNUAL REPORT

아름다운재단 나눔가계부

2010 ANNUAL REPORT

아름다운재단 나눔가계부

아름다운재단 소개

- 재단이사 인사말 · 02
- 상임이사 인사말 · 03
- 아름다운재단은 ○○○이다 · 04
- 아름다운재단의 가치와 지향 · 06
- 아름다운재단의 사업 · 08
-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하는 사람들 · 10

아름다운재단 한해 이야기

- 한눈에 보는 아름다운재단의 사업
 - － 변화의 시나리오 · 14
 - － 저소득층 단전가구 지원사업 · 17
- 2010년 영역별 배분사업 · 21
- 아름다운재단의 새기금 · 33

아름다운재단 10년의 이야기

- 아름다운재단의 성장과 변화 · 38
- 아름다운재단 10년, 10가지 감동 · 40
- 아름다운재단 대표브랜드 · 47
- 창립10주년 기념 행사 〈단추수프축제〉 · 48
- 창립10주년 기념 컨퍼런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던 나눔에 관한 질문들〉 · 50
- 제10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0〉 · 52

아름다운재단 살림살이

- 한눈에 보는 아름다운재단의 재정 · 54
- 외부감사인의 보고서 · 57
- 재무제표 · 58
- 기금현황 · 62
- 지원단체 목록 · 69
- 기부자 명단 · 74





| 철수 金

"나눔어 보셨어요?" "나눔은 것 처럼 행복한 일이 어땠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경험인지 아세요?"

모두 나눔을 권유하는 말입니다. 저명인사들의 나눔사례를 소개하는 말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안나눔어 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할일은 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을 털어서 다시 가난한 이웃을 거드는 이야기가 지혜서에도 보이고 <아름다운재단>에도 흔하게 보이는 까닭이 뭘까요? 인색하게 쌓아두기보다 나누는 기쁨이 크다는 뜻이겠지요.

나눔을 통해 얻는 마음의 변화가 좋고 아름다웠다는 말씀이겠지요.

앞이 무성하면 열매가 오히려 부실해집니다. 농사지으면서 알게된 상식입니다. 앞은, 열매를 위해 제 할 것 나누는 일을 당연한 줄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의 내일이 밝게 열린다는 지혜를 온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지혜를 권하고 정직하게 나누는 <아름다운 재단>의 얼굴, 예뻐보입니다. 자주 만나면 좋은일이 생길것 같지 않으세요? ☺

기부문화의 신기원을 연, 아름다운재단 10년의 자취



예증석

아름다운재단 이사·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 아름다운재단이 어느새 출범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만, 요즘 세상의 변화 속도를 감안하면 지난 10년은 참으로 지나간 세월이었습니다.

재단의 10년 역사에 정책자문단장, 기부문화연구소장, 이사 등의 역할로 미력이나마 보태면서 함께 해온 사람으로서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역사는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신기원(新紀元)을 연 자취였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0년동안 이루어온 업적을 일일이 다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만, 재단의 공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숙한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은 1% 나눔운동,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재정립, 기빙코리아, 기부문화운동의 투명성 확보 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나눔운동'은 우리 사회에 풀뿌리 기부를 확산시키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부는 '부자들의 전유물'이라는 일반의 인식을 바꾸고 시민들의 기부참여를 제고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아름다운재단은 기업의 사회공헌이 자선적 시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심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데도 공헌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양적, 질적 수준 변화가 그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재단이 출범된 이듬해부터 매년 개최해온 <기빙코리아 Giving Korea>는 한국인의 기부지수와 한국의 기업 사회공헌 실태를 번갈아 발표함으로써 우리의 기부현황을 진단하고 새로운 기부문화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바지해왔습니다.

또한 아름다운재단은 유리알 같이 투명한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모범을 보여 왔고 기부문화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데도 일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금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빈틈없이 기록한 이 연간보고서가 아름다운재단의 투명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여유 없이 분망하게 달려온 10년입니다. 이루어 낸 것도 있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는 세월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기부자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성원과 사랑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지원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아름다운재단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 구성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가야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10년을 거울삼아 10년 후에는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기를 기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사랑의 매질로 저희들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며



윤정숙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 아름다운재단이 열 살이 되었습니다. ‘나눔으로 함께 만든 10년’을 돌아봅니다. 2000년 아름다운재단은 나눔으로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세상’을 꿈꾸며 태어났습니다.

나눔으로 함께 희망과 기쁨의 역사를 만들어준 수많은 기부자들을 기억합니다. ‘1% 나눔운동’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이 심어준 나눔의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 이제 푸르고 아름다운 숲이 되었습니다. 그 나무와 숲은 누구든지 자신이 가진 것 100개중 하나를 나누면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개인과 개인,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나누고 보살피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 말해줍니다.

‘나눔은 지갑을 열기 전에 마음을 여는 것이다’고 합니다.

이웃과 세상에 작은 희망이 되고 싶었던 수만 명의 마음이 모여 아름다운 나눔의 숲을 이루었습니다. 기부금을 내놓으시며 ‘행복할 기회를 주어 고맙다’, ‘내가 더 감사하다고 하겠지요. 어머니 칠순과 자식의 첫 돌을 축하하며, 스승의 날, 어린이날, 승진과 은퇴 등 삶의 마디마디 서린 기쁨과 슬픔, 가벼움과 무거움, 진지함과 경쾌함으로 찾아온 사람들. 그분들이 가져 온 나눔의 사연은 감동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런 희망이 재단을 투명하고 공익적인 시민의 재단으로 당당하게 걸 어올 수 있었던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지난해 열 살을 기념하며 기획한 ‘단추스프츠크제’는 많은 기부자님들이 새롭고 유쾌한 나눔의 시민광장이 되었고 ‘아무도 묻지 않았던 나눔에 관한 질문’ 컨퍼런스는 진지하고도 다양한 관점으로 나눔을 정의하고 질문하는 소통의 무대였습니다. 나눔은 시민의 문화이고 삶이며, 세상을 바꾸는 담론이자 실천이라는 것을 체감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름다운재단 나눔운동 10년의 역사는 ‘나눔이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이라는 것’을, ‘나눔은 나와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나눔은 누구든지 존중받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며 누구나 ‘좋은 일, 좋은 삶’을 꿈꾸는 세상, 이웃으로 이웃에게 그 꿈을 격려하고 도우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열정과 도전을 지원하며 걸어 나가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여럿이 가라”는 말이 있지요.

아름다운재단은 또 다른 10년을 바라보며 ‘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여럿이 함께 멀리 가겠습니다. 처음의 꿈으로, 처음의 마음으로 ‘시민과 공익을 잇는 아름다운 다리’를 놓으며 힘찬 걸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열 살이 되어 더욱 특별했던 2010년이었습니다.

기쁘고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 사회 구석구석 격려와 지지가 필요했던 사람들과 단체들에게 나눔으로 희망이 되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TWITTER

Search

아름다운재단은  이다.



@beautifulfund

2010년 기부자 설문 '당신이 만드는 아름다운재단'을 통해서 설문에 응해주신 기부자님들이 써 주신 글을 모았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따뜻함'이고, 어떤 분에게는 '희망'이며 또 다른 분에게는 '믿음'이 되는 아름다운재단. 한 단어, 단어마다 아름다운재단에 바라는 기부자님들의 바람이 느껴집니다. 여기에 써 주신 단어들은 아름다운재단의 현재의 모습이며, 나아갈 방향이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 

140

Tweet

Timeline

@Mentions

Retweets▼

Searches▼

Lists▼



아름다운재단은 **선인장** 이다.



아름다운재단은 **나눔** 이다.



아름다운재단은 **시민참여** 이다.



아름다운재단은 **연두빛 새싹** 이다.



아름다운재단은 **투명** 이다.



아름다운재단은 **깨끗함** 이다.



아름다운재단은 **정직** 이다.



아름다운재단은 **스마트** 이다.



아름다운재단은 **따뜻함** 이다.



아름다운재단은
소외된 자들의 친구 이다.



아름다운재단은 **희망** 이다.



아름다운재단은
오렌지색 나무의 아름다움 이다.



아름다운재단은 **창의성** 이다.



아름다운재단은 **믿음** 이다.

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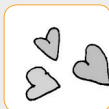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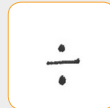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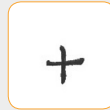
Profile

Message

Who to follow



beautifulfoundation

아름다운재단은 **개혁!**이다.아름다운재단은 **전문적**이다.아름다운재단은 **행복**이다.아름다운재단은 **특정인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시민단체**이다.아름다운재단은 **다양성**이다.아름다운재단은 **풍성한 나무**이다.아름다운재단은 **등대**이다.아름다운재단은 **소박한 꽃**이다.아름다운재단은 **진보**이다.아름다운재단은 **사람냄새나는 투명한 조직**이다.아름다운재단은 **기복**이다.아름다운재단은 **연결고리**이다.아름다운재단은 **공익**이다.아름다운재단은 **투명한 운영**이다.아름다운재단은 **동참**이다.아름다운재단은 **무지개**이다.아름다운재단은 **참 사람들**이다.아름다운재단은 **사랑=나눔**이다.아름다운재단은 **행동하는 기부처**이다.

아름다운재단의 가치와 지향

아름다운재단의 가치

아름다운재단은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는 비영리공익재단입니다.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8월에 설립됐습니다.

미션

|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나눔의 생활화 |

나눔은 물질보다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생활방식이자 문화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나눔으로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스스로 가치를 높이고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비전

| 행동하는 시민기부문화의 확산자 |

나눔은 일상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실천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을 실행하는 기부자들의 가장 성실한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 공익활동의 지속가능모델 인큐베이팅 |

공익활동은 더 좋은 사회를 꿈꾸며 사회전체의 패턴을 바꾸어 가는 일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자신의 삶과 주변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익활동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핵심가치

| 투명성 |

신뢰는 투명한 운영을 통해 쌓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크고 작은 일들을 유리알처럼 낱알이 공개함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깨끗한 나눔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 모금과 배분, 조직운영의 투명성

- 매년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시, 월례 보고서 발간
- 월별 수입지출장부와 직원 급여 공개

★ 필요한 곳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투명한 절차와 의사소통

- 객관적이고 공정한 배분위원회 운영
- 임직원 윤리헌장, 배분헌장, 기부자헌장
- 기부금의 배분 절차와 결과에 대한 자료 제공과 보고

★ 타 비영리 단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활동

| 공익성 |

나눔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개인과 집단의 문제를 공동체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공익의 가치에서 시작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전통적인 자선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공익 영역을 아우르는 폭넓은 나눔문화로 성장시켜 가고자 합니다.

★ 기부자, 수혜자, 사회가 필요로 하는 도움 영역 개발

–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제의 근본을 찾는 환경 진단과 개선 노력

★ 공익을 위한 상상력

– 사회문제의 구조를 바꾸는 창의적 사업의 개발과 지원
– 시민의 인식과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캠페인 전문성

Ⅰ 상호존중 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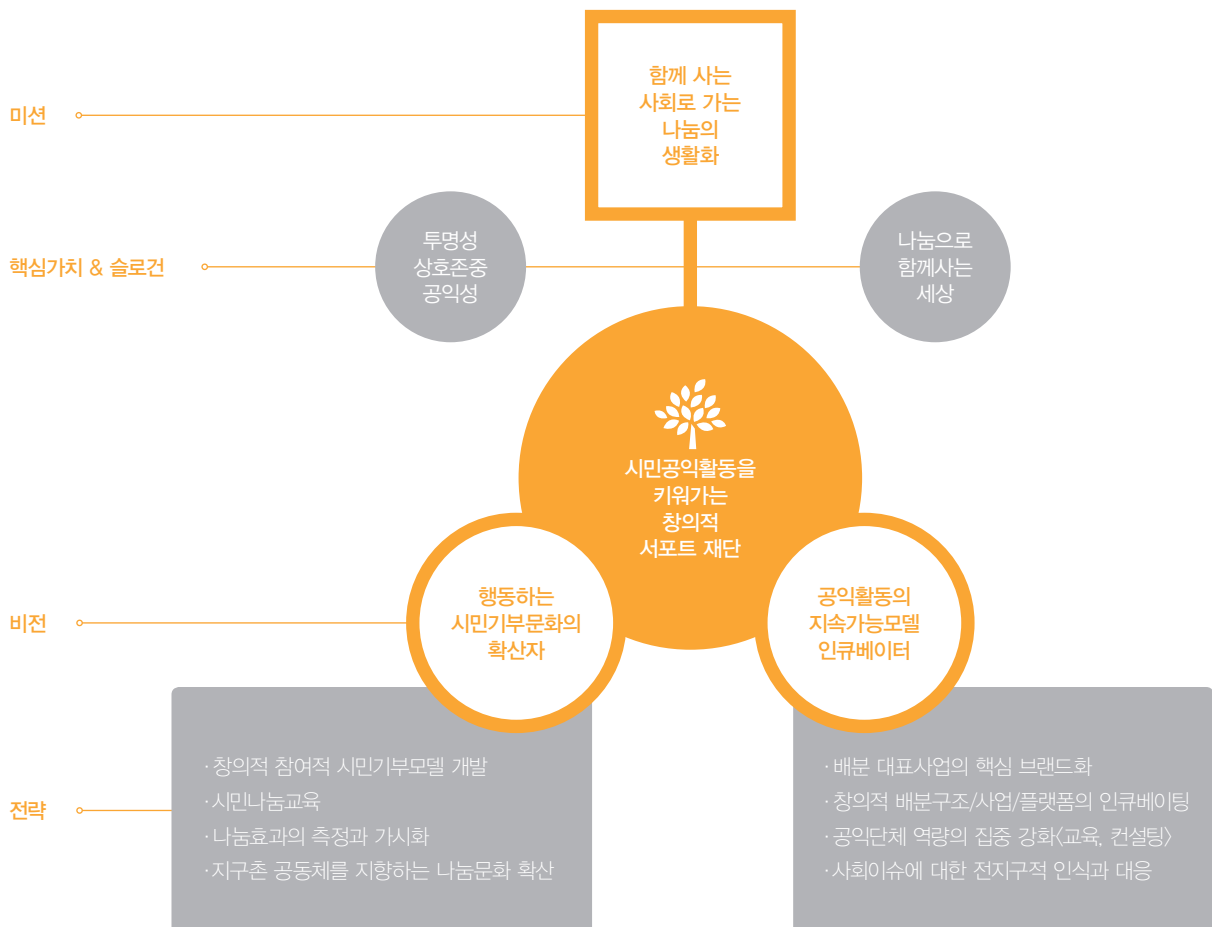
나눔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에게 힘이 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가치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의 인권과 품위를 존중하는 나눔 문화를 일구어 갑니다.

★ 기부자의 뜻을 경청하고 존중

– 기부자의 삶의 연대기 (기부동기, 연령, 라이프스타일)를 고려한 다양한 기부방법 제공
– 맞춤형 기부 컨설팅 (기부컨설턴트, 기부컨설팅위원회의 운영)

아름다운재단의 지향



아름다운재단의 사업



사업 01.

아름다운 1%나눔 캠페인

아름다운재단은 일반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나눔의 방법이자, 다양한 나눔의 이야기를 만들고 소통하는 아름다운 1%나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 생활속 1% 나눔

월급 1%, 연봉 1%, 생활비 1%, 용돈 1%, 나눔의 가게 등 삶의 모습만큼이나 다양한 1% 나눔입니다.

★ 재능과 전문성 1% 나눔

문화나눔, 디자인나눔, 인세나눔 등 문화예술인, 공연자, 작가, 디자이너 등 전문가들의 지식과 능력 나눔입니다.

★ 기부선물

축하고 싶은 날, 의미있는 날을 나눔으로 특별하게 기념합니다.

★ 시민주도형 1% 나눔

시민모금가, 아름다운일터 캠페인 등 일상과 일터에서 스스로 모금하고 나눔문화를 만드는, 행동하는 기부자들이 만드는 나눔입니다.

★ 이슈캠페인

사회문제의 여론화, 나눔참여를 통해 제도와 인식을 바꾸는 캠페인입니다.



사업 02.

사회적 약자, 소수자,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민들의 참여로 조성된 기부금으로 공익과 대안, 빈곤과 차별, 미래세대, 기타 나눔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그리고 공익활동을 지원합니다. 50여개에 달하는 배분사업을 통해 아름다운재단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내는 발굴자이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민간 사회안전망이자, 사회변화를 만드는 공익활동의 성실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공익과대안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공익활동을 지원합니다.

★ 빈곤과차별

빈곤층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심의 확대와 차별적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 미래세대

미래의 주역이 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돌봄과 창의적 배움을 지원합니다.

★ 기타나눔

나눔을 실천하고픈 따뜻한 마음과 나눔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서로 이어주며 함께 사는 사회로의 통로가 되도록 지원합니다.



사업 03.

기부컨설팅

아름다운재단의 경험과 지식,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적절한 기부의 방법과 분야를 제시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의 기부컨설팅을 통해 개인과 기업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금 운영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기금

기부참여자의 욕구와 희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금출연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 기업사회공헌 프로그램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적인 공익활동을 위한 파트너가 됩니다.

★ 유산나눔

유산기부를 위한 정보에서 유언장 작성과 공증까지, 전문가의 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사업 04.

교육과 연구

우리 사회에 나눔문화가 단단히 뿌리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비영리단체와 시민을 위한 체계적인 나눔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빙코리아 기빙인덱스, 기빙코리아 국제기부문화심포지움, 법제와 세제 연구 등 기부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조사사업을 진행합니다.

★ 교육과 출판사업

나눔교육, 비영리컨퍼런스, 기부문화총서 등 기부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출판사업을 진행합니다.

★ 류무종기부문화도서관

우리나라 최초의 기부전문 도서관 운영과 비영리단체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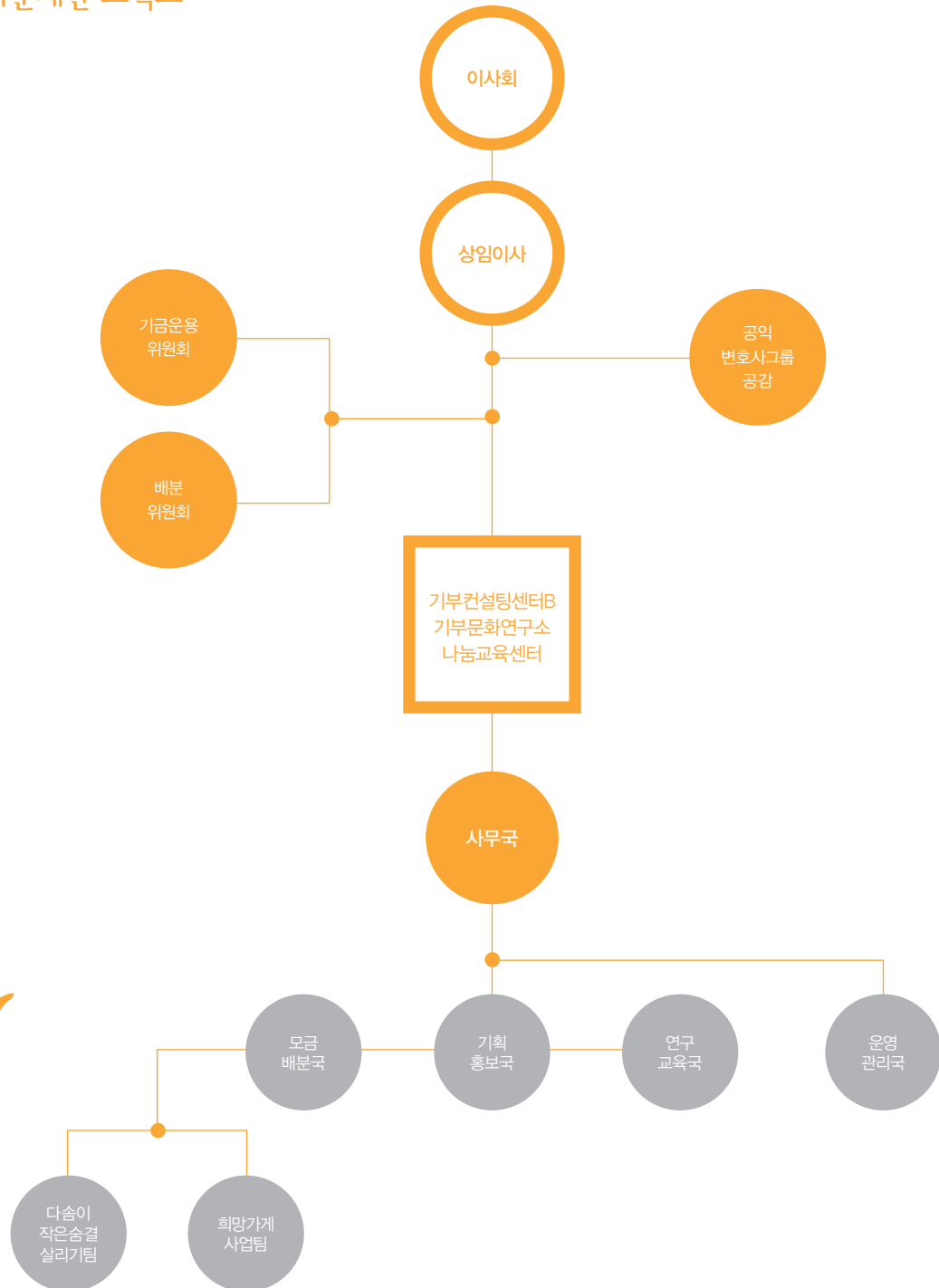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삼아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변호사들의 활동입니다. 공감은 공익단체 법률지원, 법률교육, 공익소송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며, 우리 사회 인권의 경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하는 사람들

아름다운재단 조직도





이사회

이사회는 아름다운재단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아름다운재단 사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 이사장	박상증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 상임이사	윤정숙	(전)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한국인권재단 이사
★ 이사	김영태	사회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홍남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영숙	플래시먼힐러드코리아 대표이사
	박희옥	원더스페이스 대표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서울대 법학대학 교수
	안철수	안철수연구소 이사회 의장
	예종석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장·글로벌경영전문대학원장
	유영구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이대공	포스코교육재단 이사장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과학연구원장
	한찬희	딜로이트컨설팅 안전회계법인 대표
★ 감사	김의형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박종문	법무법인 원 변호사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아름다운재단 자산운용의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고, 자산의 투자계획 및 자산운용방안을 확정합니다.

★ 위원장	장하성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위원	김지홍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재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부사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배분위원회

배분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아름다운재단 배분사업의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고, 배분단체(개인)를 심사, 선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위원장	김동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위원	조흥식	아름다운재단 이사·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정책자문위원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
	김선민	학경연구소 소장·한성대 겸임교수
	홍현미라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예자	여성장애인연합 이사·아시아장애인네트워크 대표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부 교수
	정무성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부컨설팅 센터B

‘기부컨설팅센터B’는 변호사 분과, 세무사/회계사 분과, 법무사 분과, 부동산 분과, 금융 분과 등 총 5개 분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부컨설팅 전문가 그룹(Professional Advisory Group: PAG)을 통해 기부자의 다양한 자산보유 형태와 생애 계획에 맞춰 도움이 필요한 사회 각 분야를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연결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 **위원장** 권광중 법무법인 광장 고문변호사
- ★ **위원**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귀순 세무법인 부민 대표 김승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차병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양동수 공익재단 동천 변호사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지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이상희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이광재 대주회계법인 회계사 김귀순
세무법인 부민 대표세무사 하재영 하나법무사사무소 법무사 강옥분 하나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지은용 (주)알파트너스 대표 이만수 하나금융그룹 Wealth Management본부 센터장 고득성 SC
제일은행 삼성 PB센터 이사 오승택 신한 PB 스타타워센터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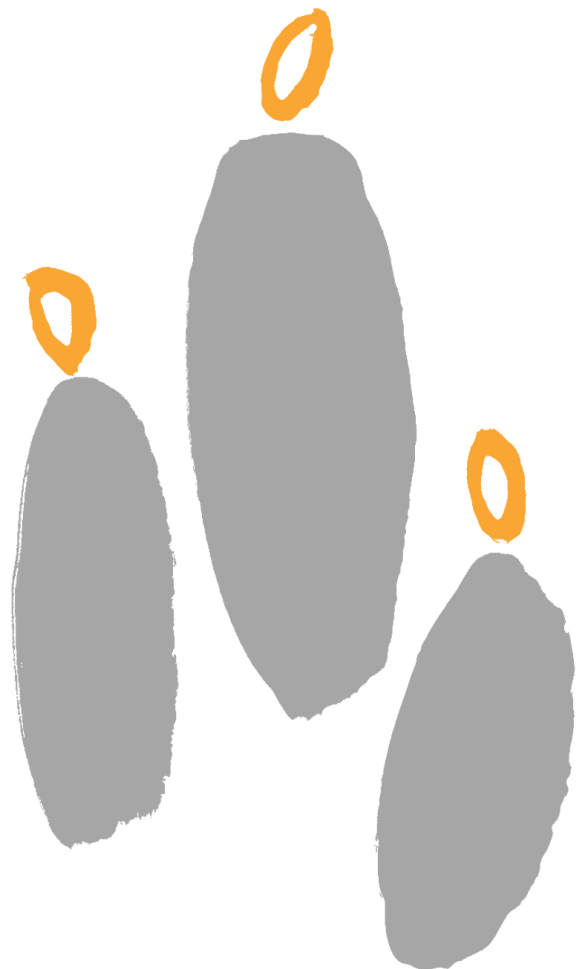
기부문화 연구소

기부문화연구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일한 기부문화전문연구소로서, 우리 사회에 건강한 기부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합니다.

- ★ **소장** 박태규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 **부소장**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부원장 박성연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 **기부문화분과 연구위원**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김운호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교수 노연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형진 도서출판 아르케 대표 정종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한정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황창순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민영 한국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준석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민인식 경희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철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 **기업 사회공헌분과 연구위원** 박성연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용준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전상경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파인애플 경영대학 교수 한동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김익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민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 **제도법제분과 연구위원**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손원익 한국재정학회·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태화 경원대학교 경상대학 회계세무학과 교수 서희열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 ★ **운영이사장** 김영진 (주)한독약품 회장
- ★ **운영이사** 김일섭 (주)한국형경영연구원 대표이사 김기수 (주)모헨즈 회장 김량 (주)삼양제맥스 사장
김정완 (주)매일유업 사장 김중민 (주)스텝뱅크 회장 남승우 (주)폴무원 사장 박용만 (주)두산 인프
라코어 회장 예종석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윤재승 (주)대웅 부회장 이강호 (주)한국그린포스
퍼프 사장 정몽윤 (주)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2010 ANNUAL REPORT
아름다운재단 나눔가계부

아름다운재단 한해 이야기



창의적인 변화를 지원합니다

〈변화의 시나리오〉 그 시작에서 끝까지

아름다운재단의 여러 배분사업 중에서도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배분사업마다 그 과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변화의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재단 배분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4

첫번째 사업계획과 배분위원회

새해가 시작되면 아름다운재단은 배분사업을 계획합니다. 이를 위해 사무국의 담당부서는 수많은 회의와 워크숍으로 겨울을 보냅니다. 사업계획에는 공모, 지원규모, 심사방법, 홍보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사무국에서 만든 사업계획은 이사회를 통해 확정됩니다. 특히 배분사업의 계획과 예산은 배분위원회에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합니다. 배분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되며, 배분사업의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신청서류를 심사합니다. 각 배분위원은 2~4개의 배분사업 심사를 맡고 있으며, 2010년에는 모두 11인의 위원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두번째 배분사업 설명회

〈변화의 시나리오〉는 공익단체의 대안적이고 창의적인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취지에 부합하는 좋은 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홍보합니다. 단체들은 이러한 홍보와 안내를 접하고 사업신청을 준비합니다. 접수공지 요강을 안내하고 신청 상담을 받는 배분사업 설명회는 2010년의 경우, 서울, 부산, 대전, 경기 4개 지역에서 총 6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배분사업 설명회가 끝나면 접수기간에 맞춰 공지문을 게재합니다. 보통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에 발표되며, 공지에는 신청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안내가 포함됩니다. 또한 보다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외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며, 동일한 내용이 팩스와 이메일, 우편으로 발송되기도 합니다. 2010년에는 모두 2,100여 통의 팩스와 메일, 우편을 보냈습니다.

| 2010년 3월, 서울에서 열린 배분사업 설명회 현장 |



세번째 접수와 실사

접수기간에는 전국의 각지에서 신청서가 도착합니다. 신청서는 매일 수북하게 쌓입니다. 신청이 마감되면, <변화의 시나리오>를 담당하는 간사는 자료와 신청서류를 심사위원들에게 보냅니다. 이 과정을 '서류심사'라고 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서류심사에서 2배수 정도의 대상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실사가 필요한 대상을 지정하여 사무국에 알려줍니다. 심사위원들은 방대한 분량의 서류심사를 진행하면서도 힘들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해주지 못해 아쉬운 마음입니다. 재단 외부에 있는 심사위원들에게 보낸 신청서류들은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심사가 종료되면, 보관본을 제외하고 반드시 파쇄하게 됩니다.

왼쪽사진 | 접수기간 동안 사무국에 접수되어 점점 쌓여가는 신청서들 |

네번째 심사와 발표

사무국의 실사까지 종료되면, 배분위원회의 <변화의 시나리오> 심사위원들은 모여서 선정회의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는 신청서와 사무국의 실사보고서가 검토됩니다. 선정회의는 도시락을 먹어가며 오랫동안 진행됩니다. 그만큼 심사숙고할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시나리오>를 심사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화의 시나리오> 심사기준

- ★ 적합성 본 사업의 취지에 맞고, 근거가 구체적이고, 방식이 적합할 것
- ★ 확대가능성 성과가 지역과 시민사회에 공유되며, 다른 곳으로 확대파급이 기대될 것
- ★ 참신성 새로운 대안적 콘텐츠를 담고 있을 것
- ★ 예산 현실적인 작성일 것
- ★ 수행단체 단체가 사업수행 능력이 있으며, 활동과 재정이 투명할 것

2010년 <변화의 시나리오>지원 사업에는 모두 201개의 사업이 접수되어, 34개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결과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최종 발표가 있는 날에는 많은 단체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안타깝게 떨어진 단체의 문의전화도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항의가 아니라 심사의 과정에서 지적된 개선사항을 개선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 하루 종일 진행되는 신중한 선정회의 |



다섯번째 오리엔테이션과 결과보고

선정된 단체들은 선정된 이듬해에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모두 모여 오리엔테이션을 받습니다. <변화의 시나리오>를 수행하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안내되고, 지원금을 출납하는 회계규정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선정된 각 단체들이 각자의 사업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순서도 진행됩니다. <변화의 시나리오>에 함께 선정된 단체들은 다른 사업들을 보고 많은 정보와 영감을 얻어갑니다.

| 아름다운재단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10년 변화의 시나리
오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

<변화의 시나리오>는 점수를 하고 지원금을 보내주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정단체의 사업이 원활하게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를 점검합니다. 1년에 걸친 사업수행이 마무리되면 단체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결과보고서에는 사업수행에 대한 내용과 평가가 들어있으며, 지원금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포함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이 다른 지원기관보다 특별한 점은 정부의 인가를 받지 못한(혹은 받지 않은) 공익단체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치적인 풀뿌리운동과 한국 국적이 없는 이주민운동 등을 지원하는 <변화의 시나리오>는 정부인가를 받지 않은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름다운재단 사무국은 사업과 회계업무에 경험이 적은 단체들의 사업 수행부터 결과보고서까지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변화의 시나리오>는 시민들의 작지만 소중한 1%기부로 만들어진 1%기금을 배분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변화들이 시작됩니다

2010년은 아름다운재단이 걸어 온 지 10년, 이웃과 사회를 위해 배분사업을 해 온 지 9년이 되는 해입니다. 2004년에 처음 시작된 <변화의 시나리오>도 7년을 맞았습니다. 사회를 정의롭게 고치는 의로운 시나리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감동적인 시나리오, 이웃과 공동체를 구축하는 풀뿌리의 시나리오,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도전적인 시나리오가 실제로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공정성을 위해 사무국의 실사를 강화하고, 사업수행 단체에게 보다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좋은 공익사업들이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기부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빛 한줄기로 만드는 희망

〈저소득층 단전가구 지원사업〉을 정리하며

빛, 한 줄기

요즘 한창 ‘복지’가 화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지요. 에너지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복지와 관련해서 지난 2006년 3월에 ‘에너지기본법’ (2010년에 ‘에너지법’으로 변경)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이 에너지 복지와 관련된 국내 최초의 법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 철학 등이 부재하여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복지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2010년 말에 발의된 에너지복지 법안이 그 계기입니다. 에너지기본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에너지 복지 개념, 에너지 기본권 개념 등을 포함하고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효율 서비스 지원 등이 논점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이 생활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에너지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최소한의 권리인 에너지 기본권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고 이를 반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시도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2010년부터 우리 사회의 에너지 복지에 대한 감수성을 확산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한 두 번째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아름다운재단이 지난 2003년부터 진행해 온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문제제기와 활동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 방향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불이 켜지지 않는 집. 단전된 집은 가장 원시적인 공간으로 변해버려, 더 이상 집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인 ‘전기’. 단전은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빼앗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전기가 끊어진 첫날, 선풍기를 돌릴 수 없어 비지땀을 흘리며 캄캄한 방에서 잠자는 애들을 보고 있으면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요즘 세상에 전기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돈 몇 푼 없어 자살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

2003년, 한 신문을 통해 소개된 이 신문기사를 계기로 아름다운재단은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게 하여 저소득가구의 기본적인 생명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작은 희망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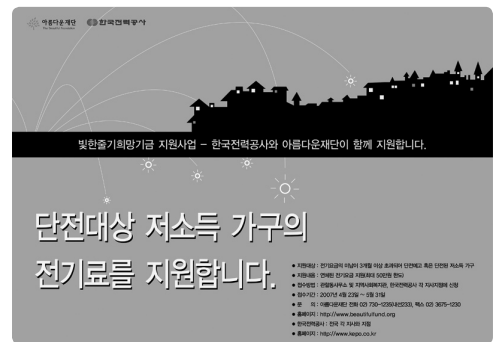
희망의
빛한줄기

깜깜한 절망 속에서도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단전 가구를 위한 희망의 빛한줄기를 만드는 사업, 아름다운재단은 2003년부터 5년간 단전가구 연체전기로 대납지원사업을 통해 10,805가구에 1,268,310,776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전가구 지원사업 현황

2003년 ~ 2008년

연도	배분금액	지원가구 수
2003	153,953,375	2,760
2004	69,289,511	2,437
2005	204,492,950	1,751
2006	255,454,140	1,309
2007	294,142,780	1,259
2008	290,978,020	1,289
합계	1,268,310,776	10,805



| 단전가구 지원사업을 위한 포스터 |

단전가구 중 많은 세대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연체된 관리비를 모두 내야 단전 문제를 해결되는 상황이었기에 아파트 관리비 연체금액을 포함하여 지원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관리비 부담과 더불어 쌓여가는 높은 연체료, 주거지 강제퇴거에 대한 경고장과 소송 문제 등은 캄캄한 절망 속에 빠진 이들을 더 깊은 어둠의 늪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가스요금, 전화요금, 기타 보험료 등 각종 생활요금이 장기 연체되어 있어 전기요금을 해결한다고 해도 악순환을 끊기는 쉬운 일 이 아니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의 경우도 전기요금이 주택소유자 명의로 부과되거나 서류상 주소 문제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빈곤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을 미치기 어려웠습니다.



변화의
빛한줄기

2003년 긴급구호사업으로 처음 시작된 모금 캠페인과 지원사업은 종교단체, 기업, 일반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2004년 한시적이긴 하지만 한국전력의 단전유예 정책과 정부의 빈곤층 지원대책 마련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2004년 겨울부터 시행된 단전유예 정책은 2005년부터는 단전이 아니라 최소한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소전류 제한장치가 공급되기 시작되었고, 전기제한 공급량도 초기보다 증대되었습니다.

“ 전기요금이 체납되더라도 단전, 즉 전력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전기인 220W를 제한 공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유지는 가능하게끔 하는 제도로 220W는 형광등 2개와 25인치 TV 1대, 150리터 냉장고 1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

이처럼 단전에 대한 작은 관심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에너지 빈곤문제를 에너지 복지차원으로 접근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던 것입니다. 또 2006년 제정된 에너지기본법은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에너지기본법 제4조 제5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한다.”

이후 단전가구의 화재로 인한 사망사건을 통해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에너지기본법 제정 등으로 에너지의 공적기능이 부각되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 복지구현을 위해 에너지복지 전담 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이 출범하게 되면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본격적인 에너지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본권을 위한 두 번째 발걸음

2008년 겨울을 끝으로 종료된 아름다운재단의 <저소득층 단전가구 지원사업>은 에너지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계기를 마련했고, 에너지기본법 제도화에 기여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에너지는 인권 문제이며, 기본적 권리로서의 사회적 인식 형성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해 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120만 가구가 광열비 등 에너지 구입 비용으로 가구 소득의 10% 이상을 지출하는 에너지 빈곤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 현상은 저소득층을 더욱 확대시켰고, 지속적인 국제 원유가격 급등 등은 에너지 빈곤층을 더욱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에너지기본법은 에너지복지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끌어냈지만 다른 복지정책과 달리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정책은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나마도 개별 에너지공급자별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법과 같은 제도적 근거 미비로 체계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지속성과 형평성, 효율성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재단은 두 번째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빈곤계층에게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민간재단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지원사업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의미 있는 데이터는 무엇인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한 법안 및 조례 마련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풀어야 할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두 번째 발걸음은 측은지심을 뛰어넘어 아름다운 사회적 연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빛한줄기를
나누다

단전가구 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빛나는 나눔의 이야기

2003년 1차 온라인 모금을 통해 참여한 167명의 기부자를 시작으로 879명의 개인기부자가 아름다운재단과 뜻을 함께 해주었고, 현장모금 및 일시기부를 통해 기부해 준 익명기부자와 교회를 통한 신도들의 교액기부, 기업기부 등 다양하고 빛나는 나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빛한줄기희망기금 포스터 |

★ 한국전력 임직원의 급여 나눔을 시작으로 조성된 ‘빛한줄기희망기금’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에 근무하면서 규정상 어쩔 수 없이 단전을 하고 뒤돌아서서 깊은 아픔의 한숨을 내쉬던 한국전력과 임직원들 그 무거운 마음을 덜어내고자 매월 급여에서 정성을 모으기 시작했고, 회사는 매칭기부금의 일정 금액을 추가 기부했습니다. 또 금 열돈을 기부한 한국전력의 김쌍수 사장님, 전력 노동자의 애환을 담은 책을 출판해 인세를 기부한 김주영 한전노조위원장장을 통해 그 희망의 빛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 한국전기신문사 전기사랑마라톤대회 현장 모금

전기가 특권층에서 민간으로 확대된 4월 10일을 기념하며 매년 전기신문사가 주최하는 전기사랑마라톤대회, 대회 현장에 마련된 모금부스를 통해 전기인들의 단합과, 전기가 지닌 첫 마음을 실천하는 자리를 증명하듯 단전가구를 위한 기부가 이뤄졌습니다.



| 전기사랑마라톤대회 |

★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한 번도 돈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본 적 없었다 - 조돈중 기부자

2004년 네 식구의 마지막 보루였던 임대아파트의 강제퇴거 집행을 앞두고 지원받은 249만원. 이 지원은 단전을 앞둔 막막한 상황에서 조돈중님에게 ‘빛’이 되었고, 이로 인해 얻은 힘으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2007년 자신의 처지에 있는 다른 이들을 돕고 싶다는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전기로 지원도 가난한 이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 조돈중 기부자님 |

★ 더위도 기쁨이요, 보람. 오늘도 거침없이 전기절약! - 오완금 시민모금가

무더운 여름 한 달 동안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를 사용하면서 절약된 3만 원. 적은 돈이지만 많은 것을 느끼고 얻은 체험의 결과는 아름다운재단의 시민 모금가 오완금님의 새로운 기부방법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통해 돈도 아끼고, 환경도 살리고, 절약한 금액으로 저소득 가구를 도울 수 있으니 1석3조라고 말합니다.

2010년 영역별 배분사업

공익과 대안

사업	배분금액	사업	배분금액
2010 공익단체를 위한 디자인 나눔사업	10,684,200	2010 공익단체활동가건강권 지원사업	382,000
2010 공익단체 활동가/네트워크 지원사업	48,520,669	2010 공익단체활동가교육과재충전 지원사업	40,859,017
2010 공익단체출판지원사업	18,686,280	2010 아름다운사람들 공익시상	18,800,960
2010 공익단체 기자재 지원사업	39,049,604	신한의원후원기금 시상지원	2,499,151
2010 변화의시나리오(대안적공익활동지원사업)	610,670,502	2010 공익과대안 특별지원사업	19,852,751
2010 개미스폰서	59,235,415	공익변호사 공감 사업비	510,608,748
2010 마을작은도서관 지원사업	78,105,941	아름다운재단 10주년 기념사업 - 이빠진 동그라미특별지원	10,411,880
2010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78,978,595	아름다운재단 10주년 기념사업	219,495,516
2010 공익단체활동가자녀보육비 지원사업	88,402,900	공익과대안 영역계	1,889,602,329
2010 환경활동가자녀교육비 지원사업	34,358,200		

사회와 사람을 변화시키는, 〈공익과 대안〉

우측사진 |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중 하나인 버마의 옛 수도 양곤의 변두리에는 '꽃을 심는 손'이라는 예쁜 뜻을 가진 〈뽕뽕레〉이라는 마을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한국에 와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버마 이주노동자들이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의 지원을 받아 세운 것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소중한 희망을 띄우고 있습니다 |

아름다운재단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만드는 공익단체를 지원합니다. 〈공익과 대안〉 배분사업은 공모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와 풀뿌리단체의 공익적 프로젝트와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와 디자인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재충전, 건강검진, 보육비와 같은 활동가를 돕는 여러가지 개인지원을 수행합니다.

2010년에는 비정규 노동과 소수자 인권을 포함한 한국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였으며, 한국을 넘어 공동체 운동이 싹트고 있는 아시아의 여러 현장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시상을 통해 공익적 시민을 발굴하고, 활동가 자녀의 보육비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공익과 대안〉 배분사업은 〈1%기금〉을 기반으로 합니다. 〈1%기금〉은 '1% 나눔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슬로건처럼, 시민들의 소액기부가 모여서 만들어진 아름다운재단의 대표 기금입니다. 따라서 〈공익과 대안〉 배분사업을 통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들의 후원자는 바로 시민, 기부자입니다. 가령 〈1%기금〉의 기부자 한 사람이 평균 1만 원을 기부한다면, 1천5백만 원을 지원받는 〈변화의 시나리오〉수행 단체에게는 1천5백 명의 후원자가 생기는 셈입니다.



〈공익과 대안〉 2010년 배분사업 활동

★ 변화의 시나리오

시민사회, 풀뿌리단체의 대안적 공익 프로젝트와 활동을 지원합니다.
 >>> 총 34개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 개미스폰서

시민사회, 풀뿌리단체의 홍보, 행사를 지원합니다.
 >>> 총 19개 단체의 다양한 행사 및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 공익단체 출판 지원사업

시민사회, 풀뿌리단체의 공익적 출판물 발간을 지원합니다.
 >>> 총 2개 단체의 출판물을 지원하였습니다.

★ 공익단체 활동가 네트워크 지원사업

시민사회, 풀뿌리단체나 활동가들의 네트워킹과 연대활동을 지원합니다.
 >>> 총 10개 네트워크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 공익단체 활동가 자녀보육비 지원사업

공익단체 활동가의 미취학 자녀 보육비를 지원합니다.
 >>> 미취학 자녀가 있는 총 44명의 활동가들을 지원하였습니다.

★ 환경 활동가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환경단체 활동가의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총 17명의 환경활동가를 지원하였습니다.

★ 공익단체 활동가건강권 지원사업

공익단체 활동가의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 총 88명의 활동가에 건강검진권을 지원하였습니다.

★ 아름다운 사람들 공익시상

우리 사회의 공익적 시민, 활동가, 의인을 시상합니다.
 >>> 총 11명의 시민과 활동가에 상금과 상패를 지원하였습니다.

★ 국제 NGO연대 기금 특별지원

아시아 NGO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사회변화와 사회혁신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아시아 엔지오 이노베이션 서밋 2010 Asia NGO Innovation Summit 2010〉(희망제작소)을 지원했습니다.

★ 공익단체 활동가 교육과 재충전 지원사업 〈비움과 채움〉

공익단체 활동가의 재충전과 교육을 위한 여행을 지원합니다.
 >>> 총 11개의 활동가 그룹을 지원하였습니다.

★ 공익단체 기자재 지원사업

시민사회, 풀뿌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합니다.
 >>> 총 21개 단체에 각종 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 공익단체를 위한 디자인 지원사업

시민사회, 풀뿌리단체의 CI나 리플릿 디자인을 지원합니다.
 >>> 총 21개 단체에 CI나 리플릿 디자인과 이들을 활용 가능하도록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 마을작은도서관 지원사업

마을작은도서관의 도서 구매와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총 16개 도서관을 지원하였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드는 주민의 자치적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총 20개 단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 10주년 기념 - 이빠진 동그라미 특별 지원사업

아름다운재단은 10주년을 맞아 기부자님들과 어떻게 더 잘 소통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단추수프축제를 통해 재단 배분과정의 투명성을 알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공익단체의 활동을 기부자에게 전하기 위해 기부자가 배분위원으로 참여하는 공개배분형태로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주노동자의 방송 MWTV가 최종 선정되어 지원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방송 MWTV에서 공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단체의 활동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



기부자로 구성된 일일 배분위원이 배분심사를 위해 회의하는 모습

빈곤과
차별

사업	배분금액	사업	배분금액
2010 홀로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58,132,620	장애인 선거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10,552,867
2010 홀로사는 어르신을 위한 국배달 지원사업	187,070,000	2010 빈곤과차별 특별지원사업	4,819,400
2010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192,360,750	한부모 여성가장창업 지원사업	888,507,403
2010 한부모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172,110,688	2010 빈곤과차별 기타지원사업	587,400
2010 국내거주이주민 모국어책 지원사업	48,351,658		
빛한줄기 지원사업	74,600		
장애아동재활을 위한 보톡스치료지원	-2,095,330	빈곤과차별 영역계	1,539,366,322

비정한 사회에서
따뜻한 사회로
〈빈곤과 차별〉

나랏님도 못 구제한다는 가난을, 이웃이 이웃을 도우며 빈곤이 차별을 낳고 차별이 다시 빈곤을 낳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아름다운재단은 2010년에도 빈곤과 차별 영역에서 5개 배분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한부모 여성가장, 홀로 사는 어르신, 이주민 등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소위 “정상(일반)”과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받고 차별받는 이들에게 한발 한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름’을 차별하는 사회 구조에 문제제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자선을 넘어 빈곤과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 제도·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등의 활동을 통해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고, 가난하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함께 사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측사진 | 국내거주 이주민 모국어책 지원사업을 통해 기부된 책들 |



〈빈곤과 차별〉 2010년 배분사업 활동

★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한부모 여성가장’이라는 이름만으로 무거운 어깨입니다. 그 무게로 당장 어디가 아파도 생계문제로 생활터전으로 나가야 하고 병원비가 두려워 진단받기도 어렵습니다. 한 명의 여성가장 나아가 한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건강검진의 기회를 지원합니다.

» 총 198명의 어머니에게 건강검진권이, 이 중 22분께 건강검진으로 발견된 병에 대한 치료비까지 지원하였습니다.

★ 빈곤과 차별 특별지원사업

노숙인의 자신감 회복과 지역사회와의 화합을 위한 노력에 응원을 보내고자 노숙인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를 통해 〈노숙인 희망 FC 축구단〉을 지원하였습니다.

★ 장애 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보조기구는 단지 신체의 기능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자존감 등 심리적인 변화까지 의미합니다. 장애 아동·청소년들이 신체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도록 자세유지 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로 분야를 나누어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 총 105명의 장애 아동·청소년들에게 자신에게 꼭 맞는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 맞춤형 보조기구 |

★ 국내 거주 이주민 모국어책 지원사업

‘다문화’라는 용어는 더 이상 낯설지 않지만, ‘다문화’를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기는 아직 어려운 일 같습니다. ‘다문화’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소통입니다. 아름다운재단에서는 ‘모국어책’으로 한국에 사는 이주민과 소통하고자 하였습니다.

»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네팔 등 5개국에서 총 7,188권의 책을 구입하여 20개의 이주민 관련 단체에 나라별 모국어책을 지원하였습니다. 각 단체에 마련된 모국어책 책장 한 칸이 다문화의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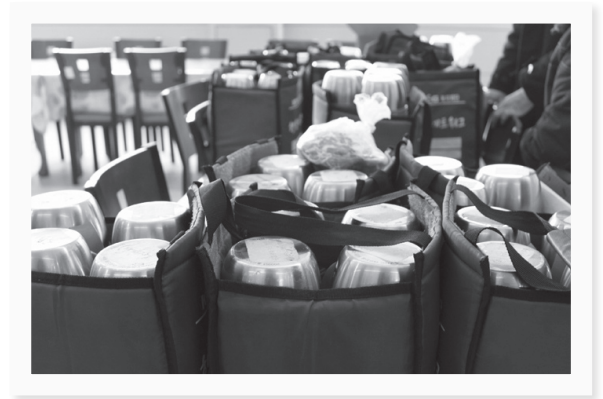


「국내거주 이주민 모국어책 지원 사업 행사에 참여한 나눔클럽 회원 어린이」

★ 홀로 사는 어르신들 위한 생계비, 국배달 지원사업

홀로 사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작은 생계비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달 생계비로 작지만 당신들의 삶을 꾸려나가시기를, 그리고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들고 찾아가는 자원활동가들에게서 따뜻한 정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 총 50명의 어르신들께 생계비·의료비를, 83개 단체를 통해 3,561명의 어르신들께 따뜻한 국을 지원하였습니다.



「홀로사는 어르신들에게 국배달 준비」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희망가게〉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사업은 이혼이나 사별로 홀로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여성가장’에게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식당 종업원으로 수년을 일하며 아이를 키웠던 어머니에게 그 경력을 살려 자신만의 식당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실력 좋은 헤어디자이너지만 나이가 많아 구직이 어려운 여성가장에게 나이가 많아도 헤어디자이너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멋진 미용실을 함께 만듭니다. 창업 이후에도 법률지원, 심리상담 지원,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역사업의 안정화와 지역확대

2010년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역에 희망가게 38개점을 열었습니다. 2007년 시작한 지역 창업지원사업이 안정화되면서 2010년에는 전년도 (2009년 16개점포)에 비해 많은 한부모 여성가장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구협력단체에서 부산지역 창업지원을, 대전협력단체에서 충청지역 창업지원을 하는 등 지역 확대도 이루어졌습니다.
(지역협력단체: 대전여민회, 대구사회연대은행, 광주북구지역자활센터)

☞ 1385개의 아이디어 모아모아

지난 7월 희망가게사업팀은 아름다운재단 최초로 문자와 SNS서비스를 도입하여 〈희망가게 대박 아이디어 공모이벤트〉라는 온라인 홍보사업을 시도하였습니다. 7월 한 달 간 1,385건의 아이디어를 시민들로부터 접수하여 희망가게 창업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영업 후 남은 반찬을 포장하여 무료로 서비스하는 음식점, 전담 코디처럼 본인 스타일을 상담해 주는 옷가게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 되었으며 많은 시민 참여가 있었습니다.

☞ 희망가게 상환율 84%

희망가게 창업주가 상환한 금액은 또 다른 한부모 여성가장의 매장을 여는 데 쓰여집니다. 2010년에는 상환율 84%, 301,697,000원이 상환되어 전년 (2009년 72%)대비 높은 상환율을 보였습니다.

10명의 어머니가 창업하여 상환한 금액 1년을 모으면 한 명의 여성가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희망가게 창업주들은 상환도, 기부도 적극적입니다. 1년 동안 자녀와 함께 모은 저금통을 가져오기도 하고, 1년 중 하루를 잡아 그날 매출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기도 합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오픈한 희망가게는 총 96개점입니다. 2011년 희망가게는 100호점을 맞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낯은 국자, 기름 때 묻은 작업복, 구멍 난 청바지로 1년 열두달 꿈을 향해 달려온 희망가게 창업주의 상환금과 기부자의 지원으로 100호점을 넘어 200호점, 300호점을 열어 많은 한부모 여성가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 희망가게로의 초대

희망가게에 관심은 있으나,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한 한부모 여성가장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법, 매장 방문, 전문가 강연 등을 통해 희망가게의 문턱을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2010년 5월 16일, 17일은 요식업 중심으로, 9월 14일, 16일 요식, 미용, 피부관리 사업 중심으로 5회 실시하여 총 56명을 초청하였습니다. 초청자 중 3명이 희망가게 지원자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창업주의 매장 방문 혹은 강의자로 초빙하면서 창업주에게는 임파워링을,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가장에게는 실질적 자립 효과를 보여줌으로서 창업의 자신감을 줄 수 있었습니다.

☛ 사전교육

심사에서 안타깝게 떨어진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상권, 마케팅 등을 교육하여, 신청자 스스로 자신의 사업계획서를 구체화한 후 재심사를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수도권에서만 8월, 11월 2회 각 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3명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배우고 실습하며 부족했던 점을 채우고 다시 도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 희망경영학교

희망가게 창업주를 대상으로 리더십, 마케팅, 상권, 고객관리, 재무관리 등 매출 증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과 11월 각 4주씩 매주 일요일 오후 2시~6시까지 8주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창업주 스스로 경영학교에서 배웠던 다양한 마케팅을 자기 매장에 적용하여 경영학교 종료 후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매장 운영을 넘어 자신의 꿈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성학자 오한숙희 선생님이 “너만의 북극성을 따라라”는 주제로 1강을 열었습니다. 자신만의 북극성을 발견하고 삶을 당당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북돋았습니다. 마지막 강의 16강에서는 서진규 박사의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건 절망스런 상황이야’라고 단정 짓는 환경을 희망의 토양으로 바꾸어 포기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 할 수 없으므로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 여름 캠프 및 송년회

성공창업을 위한 영업방법, 마인드, 관계 맺기 또는 한부모로 살아가는 각자의 애로 등을 자연스럽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8월 5일 희망가게 1박 2일 여름캠프를 진행 총 50명의 창업주 및 자녀들이 참여하여 정을 나누고 자녀가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며 서로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미래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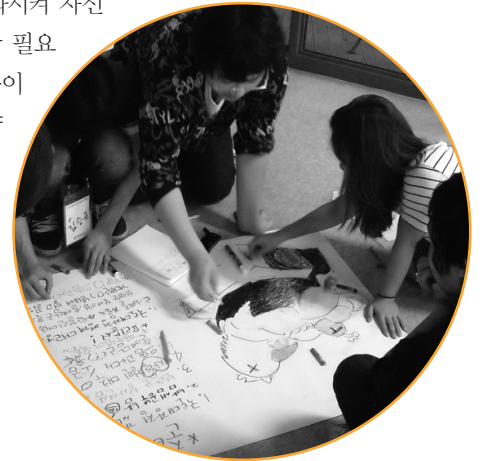
사업	배분금액	사업	배분금액
2010 아동청소년 스포츠활동 지원사업	68,007,340	2010 소년소녀가장 주거지원사업	149,865,956
2010 중학생 신입생 교복지원사업	31,816,700	2010 청소년자발적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22,915,018
2010 대전지역 이공계 성적우수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14,177,736	2010 아동청소년 여행지원사업	74,829,074
2010 저소득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148,658,896	2010 아동청소년 문화체험지원사업	49,030,177
2010 성적우수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57,277,949	2010 아동청소년 소원이루기 지원사업	69,702,725
2010 교통사고유자녀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77,601,000	2010 아동청소년 특기적성 지원사업	73,682,065
2010 교통사고유자녀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33,995,296	2010 미래세대 특별지원사업	1,917,000
2010 보육시설 퇴소 거주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143,579,522	2010 미래세대 기타지원사업	74,800
2010 실직가정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150,173,954		
2010 저소득가정 대학생 단기여학연수지원사업	19,005,668		
		미래세대 영역계	1,186,310,876

경제적 어려움이 삶의 고민이 되지 않도록 〈미래세대 장학사업〉

장학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개인에게 지원되는 특성이 있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기 위해 장학금 전달식과 장학캠프, 지역별 모임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 학생은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 부끄러움과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고, 장학 캠프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이야기 하면서 자발적인 장학생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 자신들만의 지역별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장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단기여학연수의 지원을 확대시키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아이들에게 삶의 고민이 되지 않도록 아이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장학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도봉숲속마을에서 7월 20일(화) ~ 21일(수) 1박 2일에 걸쳐 진행된 장학캠프 모습



〈미래세대〉 2010년 장학사업 활동

★ 대전지역출신 이공계 성적우수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대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이공계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총 3명의 학생에게 450만 원 이내 등록금 실비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 실직가정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가장의 실직으로 인해 학업지속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 등록금을 지원하였습니다.

» 총 36명의 학생에게 450만 원 이내 등록금 실비 전액과 3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지원하였습니다.

★ 교통사고유자녀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애를 갖게 된 가정의 대학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총 10명의 학생에게 450만 원 이내 등록금 실비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 보육시설 퇴소 거주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가 퇴소했거나 거주 중인 대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총 34명의 학생에게 450만 원 이내 등록금 실비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사업

저소득 가정의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 총 155명의 학생에게 20만 원 이내 교복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 아동청소년 스포츠활동 지원사업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으로 구성된(10명이상) 스포츠 활동 모임을 지원합니다.

» 총 15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 저소득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 수업료 전액 및 학업보조금을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원합니다.

» 총 20명의 학생에게 연간 200만 원(신입생은 교복비 30만원 추가)을 지원하였습니다.

★ 성적우수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가정의 성적우수 고등학생으로 수업료 전액 및 학업보조금, 대학 등록금을 고등학교 2학년부턴 대학 1학년까지 지원합니다.

» 총 8명의 학생에게 연간 280만 원과 대학입학 후 450만 원 이내 등록금 실비 전액 및 자기계발 프로젝트 신청 시 500만 원까지 지원하였습니다.

★ 교통사고유자녀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애를 갖게 된 가정의 고등학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원합니다.

» 총 11명의 학생에게 연간 200만원(신입생은 교복비 30만원 추가)을 지원하였습니다.

★ 대학생 단기여학연수 지원사업

아름다운재단의 장학지원을 받은 장학생 중 3명을 선발하여 여름방학동안 단기여학연수를 지원합니다.

» 총 3명의 학생에게 단기여학연수에 필요한 학비, 왕복항공료, 보험료, 숙박비, 최소 체류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 장학금 특별지원사업

» 장학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만학도인 1인의 교육비(450만 원 이내 등록금 실비 전액)를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교과서 밖 진짜 세상과 마주하다 〈창의적 배움, 따뜻한 돌봄〉

요즘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기 전에, 어느 대학을 갈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이웃과 함께 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고, 경쟁에서 앞서야 뒤처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청소년들이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서로의 관심사를 논하기란 쉽지 않은 세상에서 또래와의 배움이 경쟁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통한 과정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문화체험의 기회부터 스스로의 계획과 주체성을 가지고 떠나는 여행, 누군가 시켜서가 아닌 자신들의 생각과 관심사를 또래와 나누며 자발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회문화 활동까지, 우리 아이들이 다양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미래세대의 더 나은 환경과 변화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 2010년 청소년 대안문화활동, 저소득 청소년 권익보호 지원사업

★ 아동청소년 소원이루기 지원사업 청소년 문신제거사술 및 자립지원사업

저소득가정의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희망적인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와 함께 청소년들의 문신제거 사술 및 자립을 위해 지원합니다.

» 총 17명의 청소년들이 문신 때문에 지워야만 했던 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아동청소년 문화체험 지원사업

농어촌, 산간벽지, 지방소도시 등 문화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지역 탐방, 캠프 등의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합니다.

» 총 35개 단체에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지원하였습니다.

★ 아동청소년 여행 지원사업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계획하여 떠나는 여행, 자신감과 주체성을 키우는 여행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국내여행 10단체, 해외여행 4단체, 장애아동청소년 국내여행 3단체 등 총 17개 단체에 여행의 기회를 지원하였습니다.



| 새터민청소년 그룹 '가족'은 아름다운재단 '2010 아동청소년 여행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대한민국 옛보기'라는 주제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

★ 소년소녀가정 주거 지원사업

영구임대,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공공임대 등에 사는 소년소녀가정의 체납임대료와 연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원합니다.

»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협력사업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정 총 186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 아동청소년 특기적성 지원사업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특기적성과 재능 계발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지역사회 공부방의 문화 교육프로그램 통해 교육기회 지원합니다.

» 전국공부방협의회와 함께 100여명의 아동청소년들이 활동하는 6개 지역의 공부방에 지원하였습니다.

★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인권, 평화, 나눔, 돌봄, 환경, 미디어, 문화 등의 주제를 가지고 창의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지역사회 또는 사회의 변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청소년, 청년모듬을 지원합니다.

» 총 10개 청소년 모듬의 다양한 사회·문화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 고등학생 한글지킴이 '초아'가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살피기 위해 거리 설문조사와 우리말 쓰기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초아'란 자신을 태워 세상을 비추다라는 뜻의 순우리말입니다 |



사업	배분금액	사업	배분금액
비영리역량강화사업	9,315,128	상속문화개선과 확산을 위한 사업 (아름다운이별학교)	2,468,210
기부문화충서발전	12,695,019		
나눔자식아카이브	3,318,304		
류무중기부문화도서관	1,332,193		
기빙코리아 2010 - 기부문화심포지움	37,396,419		
기획연구 - 계획기부 도입을 위한 연구	53,558,166		
기부문화연구소운영	1,672,770		
나눔교육캠페인	75,515,642	나눔문화 영역계	197,271,851

* 기빙코리아 2010 - 기빙인덱스 수익사업비 41,522,727원 미포함

나눔의 질적 성장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나눔문화〉

아름다운재단은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진정한 나눔의 정신에 대해 고민하고, 올바른 나눔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나눔문화 영역에서는 건강한 나눔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합니다. 이를 위해 기부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조사사업, 기부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출판사업, 우리의 기부문화를 소개하고 해외 기부이슈와 선진 지식을 배우는 국제협력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금과 배분도 중요하지만 나눔의 질적인 성장을 위한 나눔문화 인프라 구축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아름다운재단, 이것이 아름다운재단의 차별성이자 아름다운재단에 나눔문화영역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나눔문화〉 2010년 배분사업 활동

★ 기부문화연구소 기획연구로 계획기부(Planned Giving) 개념 제시

계획기부(Planned Giving) 도입을 위한 연구결과 발표 세미나(2010년 4월 15일 목요일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를 통해 계획기부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계획기부란 유산기부, 고액기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부자가 장기적 시각에서 기부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전략적으로 고안한다는 측면에서 계획기부라고 불리워집니다. 따라서 일시기부나 소액기부보다 기부자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의 세밀한 계획

과 협상이 요구되고 현금, 부동산, 주식, 신탁, 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기부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부보다 모금전문가와 각계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PB 등)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미국의 경우 Giving USA에 따르면 2008년 총 기부금액 중 유산기부가 차지한 비율은 7%로 기업기부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비영리단체의 모금을 공부하는 스튜디오임

Coffee & Conversation

» 2010년 6월 11명과 8월 11명이 참여 - 총 22명

기부문화총서4 '모금이 세상을 바꾼다<김클라인 저서>'로 모금이라는 주제에 대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가회동 주변의 카페를 순회하며 모금에 대한 즐거운 수다가 한 달간 이어졌습니다. 기존의 교육, 워크샵의 무거운 형식이 아니어서 그런지 책에서 제시한 모금의 철학과 원칙, 방식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있는 조직과 개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 나눔교육 - 232명의 어린이 나눔클럽 회원 탄생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나눔을 가르쳐 그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게 한다면, 나눔의 리더십을 갖춘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사회에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아름다운재단은 이러한 꿈을 갖고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나눔교육 프로그램, <어린이 나눔클럽>을 런칭했습니다.

나눔교육 홈스쿨링 교재로 제공되는 띠앗저금통은 '저축'과 '나눔'의 습관을 함께 키울 수 있는 기특한 저금통으로서 유태인의 자녀 교육방법에서 착안했습니다. 유태인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을 위해 저축할 수 있는 저금통과 다른 사람을 위해 저축할 수 있는 저금통을 선물해 어릴 때부터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교육 합니다.

한편 <어린이 나눔클럽> 회원에게는 나눔캠프, 나눔장터, 나눔캔버스 등 다양한 오프라인 나눔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나눔클럽> 회원들은 '나누면 행복이 더해진다'는 가치를 체험적으로 깨닫고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하는 나눔의 리더들로 쑥쑥 자라났습니다.



| 나눔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이 각자 원동을 모아 하나의 통로를 만드는 모습 |

★ 기부문화총서5 발간

'로빈후드 마케팅 기업전략에서 발견한 10가지 공익마케팅 법칙' 발간(Robin Hood Marketing: Stealing Corporate Savvy to Sell Just Causes)

아름다운재단의 다섯 번째 기부문화총서 '로빈후드 마케팅'이 2010년 6월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책은 비영리조직(사회복지, 시민사회) 뿐 아니라 공익마케팅에 관심 있는 홍보, 마케팅 전문가나 관련학과 학생들에게 유용한 실용서입니다. 공익마케팅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나 소속단체의 마케팅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 국제협력네트워크 - 해외에서 온 손님맞이

» University of Pennsylvania 대학원생들의 아름다운재단 방문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원생들이 조직적 다양성(Organizational Dynamics) 수업의 일환으로, School of Social Policy and Practice의 교수인 Femida Handy의 인솔아래 한국의 다양한 기업과 비영리단체들을 방문하고 한국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아름다운 재단을 찾았습니다.

» ANIS(Asia NGO Innovation Summit)참가자들의 아름다운재단 방문
2010년 ANIS의 일환으로 한국의 다양한 비영리단체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름다운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아름다운재단의 모금과 배분, 연구와 교육 사업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ANIS(주최-희망제작소, 인텔아시아)는 아시아 13~14개국(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의 NGO 리더들이 참여하여 'Building Capacity for Changing Asia'란 주제로 변화하고 있는 아시아를 위해, 또는 아시아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NGO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 일본모금협회(Japan Fundraising Association) 대표 방문
일본모금협회 마사타카 유(Masataka Uo) 대표는 2010년 영국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만난 인연으로 한국의 대표재단인 아름다운재단의 혁신적이고 다양한 모금캠페인에 대해서 알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특히 아름다운재단에서 2008년 진행했던 무지개상자캠페인에 대해 큰 흥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기타 나눔

사업	배분금액	사업	배분금액
2010 범죄피해자가족 지원사업	16,000,555	2010 나눔일반 기타지원사업	4,126,805
2010 나눔중개사업 - 노숙인동절기 지원사업	253,000		
2010 나눔중개사업 - 노트북현물지원사업	71,000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960,062,500		
재해피해자의 경제적, 심리적 재건지원	21,390,010		
이른둥이지원사업	866,353,045	기타나눔 영역계	1,868,256,915

나눔 실천과 나눔 요청을 이어주는 복덕방 <기타나눔>

아름다운재단에는 공익과 대안, 미래세대, 빈곤과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질 수 없는 특별한 나눔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고픈 따뜻한 마음과 나눔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어주는 아주 특별한 복덕방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범죄피해자와 피해가족 지원, 문화나눔, 노숙인 매트리스 지원을 통해 복덕방의 역할을 알차게 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나눔을 실천하려는 더 많은 의지와 그 의지가 더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복덕방이 더욱 적극적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아름다운재단은 양쪽의 의지와 관심에 더 가깝고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만화가 허영만 화백과 골드윈코리아에서 노숙인들을 위해 기부한 매트리스, 방한자켓, 세면도구들



〈기타나눔〉 2010년 배분사업 활동

★ 범죄피해자 및 피해가족 지원사업

모든 범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지만 범죄로 인한 상처는 모두에게 남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범죄로 인한 1차적 피해 외에도 트라우마와 고통으로 2차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아름다운재단의 특별한 기금인 〈미연이의수호천사기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총 8건의 범죄피해자 가족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 노숙인 겨울나기 3종세트(현물) 지원사업

노숙인의 추운 겨울을 걱정하시는 기부자님이 있습니다. 매년 매트리스, 방한자켓, 세면도구를 보내주는 고마운 기부자님 덕분에 춥고 시린 마음에 온기가 듭니다. 허영만 화백과 골드윈코리아의 현물 기부로 전국의 노숙인에게 따뜻한 겨울을 지원합니다.

»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구세군브릿지센터, 만나샘상담보호센터, 웅달샘상담보호센터, 햇살보금자리상담보호센터, 밥상공동체〈원주〉,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 울산실직노숙인종합지원센터, 광주무등침터 로 매트리스 1,000개, 세면용품 1,000개, 방한자켓 1,000벌이 지원되었습니다.



| 노숙인들에게 지원된 방한자켓 |

★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시설퇴소 및 가정 환경적 지지기반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과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청소년들의 창업을 지원합니다.

» 서울 시립 청소년 직업체험센터와의 협력 사업을 통하여 20여명의 청소년들을 지원하였습니다.

★ 문화 나눔

2001년부터 10년간 31개 공연사의 자발적인 나눔으로 지속 될 수 있었던 문화 나눔. 2010년에도 총 46개의 공연과 2,458분의 공연단체 활동가를 초청하였습니다. 10년을 짝 채운 아름다운 ‘문화나눔’은 2010년 6월 종료가 되었지만 생소한 ‘문화’를 통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그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 2010년에는 46개 공연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 문화나눔을 통해 함께 한 작품들 |



이른둥이들에게 새 희망을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

2004년 9월 이른둥이에 대한 관심도, 이른둥이란 용어도 없었던 그 시절. 교보생명과 아름다운재단이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가치를 담아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한지 어느덧 6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지원받은 이른둥이가 1,000여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른둥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초기입원비에서부터, 24개월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재입원치료비, 그리고 만 6세 이하 이른둥이에게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한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른둥이 가족의 정서적인 지지와 사회적 관심을 모이기 위해 이른둥이 가족캠프, 다솜이 희망산타 등의 행사를 다채롭게 하였으며, 이른둥이 지원의 새로운 시도를 위해 지역사회 연구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를 통해 5,840명의 교보생명 재무설계사와 724명의 1% 기부자 그리고 64개 협력병원이 이른둥이 지원에 함께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 이른둥이는 미숙아의 한글 새이름입니다



341명의 이른둥이 (재)입원 및 재활치료비 지원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는 초기 입원 치료비 및 24개월 이내 재입원 치료비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국가지원이 확대되어 초기입원치료비는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으나 1,000만원 이상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건소 지원금을 제외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른둥이 특성상 흔히 발생할 수 있는 24개월 이내 재입원 치료비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 6세 이하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이른둥이들입니다. 재활치료 특성상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른둥이 가정에서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당신의 나눔으로 살려 낸, 이른둥이 1000번째 작은 숨결’ 모금 캠페인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는 6년간 기부자님들의 응원 덕분에 천여명의 이른둥이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이른둥이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 1000번째 이른둥이 자연(가명)이를 위해 2010년 11월부터 두 달간 “1000번째 작은 숨결”모금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총 91명의 기부자님이 8,456,029원의 소중한 나눔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2010년 이른둥이 가족캠프

이른둥이 가정은 장기간 입원 및 재활치료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진행한 이른둥이 가족캠프는 가족간의 유대감을 갖고 다른 이른둥이 가족들과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지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1박 2일을 함께한 즐거움 추억으로 가득 채운 이른둥이 가족들은 향후 다른 이른둥이 가정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는 지원군의 역할 할 것입니다.



다솜이 희망산타

12월 2일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23층 컨벤션홀에서 이른둥이를 위해 일일산타로 변신할 총 273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영웅 이른둥이. 그 소중한 꿈을 응원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크리스마스 선물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직접 이른둥이 가정을 방문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자들이 이른둥이 가정을 방문하기 앞서 먼저 이른둥이 가정을 방문한 산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이원 생방송한 덕분에 이른둥이와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이른둥이 욕구 및 자원연계 모델 발굴을 위한 연구 조사

이번 해는 이른둥이 치료비 지원을 넘어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자 전문위원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이른둥이 가정들이 양육하는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가정에 필요한 지원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라 이른둥이 가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새기금



기금조성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Korea-MBA과정 91대 학생회
기금조성일	2010년 1월 21일
지원사업	보육시설토소 대학생 교육비지원
기금분류	커뮤니티기금

01*

고려대학교 KMBA
나눔기금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의 Korea MBA과정의 91대 학생회는 2009년도 송년의 밤을 진행하면서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사회의 리더로서 책임과 나눔을 실천해 보자는 취지로 나눔경매를 진행하여 모인 수익금으로 <고려대학교 KMBA나눔기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금 출연을 위해 진행한 자선경매에는 Korea MBA과정의 학생들이 소장하고 있던 대통령에게 받은 청자, 유명영화배우 사인 포스터 등이 출품되었으며 가장 높은 금액으로 낙찰된 것은 당시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을 맡고 있었던 장하성 교수와의 저녁식사권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경매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도 십시일반 기부금을 내어 모자라는 금액을 충당했고 평소 고려대학교 MBA와 교류를 하고 있던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MBA과정에서도 동참하여 기금출연금 1,040만 원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기금조성자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박홍이 명예교수님과 제자들
기금조성일	2010년 2월 3일
지원사업	미래세대지원
기금분류	일반기금

02*

박홍이
휘스퍼링호프기금

<박홍이휘스퍼링호프기금>의 출연자이신 연세대학교 박홍이 교수님은 다양한 나눔활동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오래 전 부터 아름다운재단의 소식지 <콩반죽>에서 무료로 만화칼럼을 기고하는 재능기부를 해왔으며 연세대학교 내에서는 교내 봉사단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연세대학교 1학년 신입생들에게 '나눔'을 가르치고자 교양 강의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무료 교습으로 검도, 음악, 영어, 일어를 가르치시는 다재다능함을 갖췄으며 목욕봉사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염(殮)봉사에, 봉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인터넷 카페(cafe.daum.net/tomnice)를 만들고 여기에서 봉사를 위한 아이디어를 주고받기도 하는 진정한 '봉사왕'입니다.

그런 교수님이 23년간 근무했던 연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2010년 2월에 정년퇴임을 하게 되자 박홍이 교수님은 퇴임 기념으로 아름다운재단에 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교수님 뜻에 동참하는 제자들과 함께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기금을 만들게 되었고 그 이름은 미래세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의미에서 <박홍이휘스퍼링호프(whispering hope)기금>이라고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03

김현중장학기금

기금조성자	마이클럽 김현중 파워풀 써포터스 〈포털사이트 마이클럽의 드라마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김현중씨의 팬들〉
기금조성일	2010년 2월 17일
지원사업	보육시설퇴소 대학생 교육비 지원
기금분류	커뮤니티기금

〈김현중장학기금〉은 가수이자 연기자인 김현중씨의 팬들이 십시일반 모금하여 출연한 기금입니다. 포털사이트 마이클럽의 드라마 게시판에서 김현중씨를 좋아하여 모인 회원들은 자신들이 아끼는 스타에게 팬으로서 관심과 응원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나눔실천 이벤트를 벌이게 되었고 일회성, 단발성 기부가 아니라 지속적인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금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흘간 26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나눔실천 이벤트에서는 2,500여만 원이 모금됐고 그중 1,500여만 원을 아름다운재단에 〈김현중장학기금〉으로 출연한 것입니다. 이후 200여명의 회원들은 〈김현중장학기금〉에 1% 정기기부로 매칭기부를 하고 있으며 김현중씨의 생일이나 출연한 드라마의 마지막 방송을 기념하는 추가적 모금 이벤트를 벌이는 등 지속적이고 재미있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장학기금〉은 해외의 김현중씨 팬에게도 소식이 알려져 그 뜻에 동참하고자 문의하는 사례가 있어 아름다운재단 최초로 영어, 일어 기부참여 온라인 페이지가 개설되는 등의 호응을 불러일으킨 기금이기도 하며, 연예인 팬덤의 긍정적이고 새로운 나눔문화를 만든 것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04

하제장학기금

기금조성자	공인회계사 김영덕님
기금조성일	2010년 3월 15일
지원사업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기금분류	일반기금

김영덕님은 하나세무회계컨설팅 대표이자 학원과 대학, 여러 기업에서 공인회계사 준비과정 및 회계 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나라는 후진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학생이 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면 합니다”라며 기금 협약식에서 소신을 밝힌 김영덕 선생님은, “작은 돈이나마 보탬이 되어 매년 최소 4명의 학생만이라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빨리 제 손을 떠나야 작게나마 남은 미련이 사라지니까요”라며 기금 협약식 이전에 먼저 기금 출연금을 기부하기도 한 김영덕 선생님은, “누구나 어렵게 번 돈을 그냥 준다는 것이 아까울 수 있어요. 하지만 살면서 욕심에 얽매이지 않도록 매일 마음을 비워야지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번 돈의 일정 부분은 항상 기부를 하고 싶은 게 제 생각이예요”라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제자 중에 공인회계사가 되는 사람들에게도 기부를 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제장학기금〉의 ‘하제’는 순 우리말로 ‘내일’이라는 뜻으로 이제 매년 이 기금을 통해 최소 4명의 고등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을 지원받으며 내일을 꿈을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05*

아름다운 도보여행기금



기금조성자 아름다운도보여행 커뮤니티
기금조성일 2010년 6월 15일
지원사업 미래세대 지원
기금분류 커뮤니티기금

아름다운 도보여행 카페는 일반인에게는 조금 생소한 직업인 ‘Road Planner’ 손성일 님이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2006년 ‘딱 1년만 대한민국을 걸어보겠다’며 잘 나가던 회사를 그만 둔 손성일 님은 도보여행을 통해 1Km당 일정액을 적립하는 것은 물론, 지인과 걷는 길 위에서 만난 분들이 나눔에 동참하게 하여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한 원조 시민모금가입니다.

현재 아름다운 도보여행 카페는 12,000명이 넘는 회원이 평일과 주말에 수시로 모여 전국의 길 위를 걸어 여행하며, 매번 참가비의 일정액을 적립해 기부를 하는 도보여행을 통한 나눔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도보여행 커뮤니티는 이렇게 모인 기부금을 아름다운재단의 여러 사업에 수시로 기부해왔는데, 2010년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자 카페 이름을 딴 〈아름다운도보여행기금〉을 만들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적립되는 〈아름다운도보여행기금〉은 우리 사회의 미래 세대를 지원하는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06*

환상의 짝꿍기금



기금조성자 김제동
기금조성일 2010년 8월 2일
지원사업 미래세대 지원
기금분류 일반기금

뛰어난 입담으로 잘 알려진 방송인 김제동 님은 평소에도 어렸을 적 꿈이 선생님이었으며, 향후 대안학교를 만들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김제동 님이 2010년 7월 초, 4년간 진행했던 MBC 프로그램인 ‘환상의 짝꿍’ 마지막 녹화를 앞두고 같은 이름의 기금을 아름다운재단에 만들었습니다.

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김제동 님이 가장 처음 한 말은 ‘나는 모든 아이들은 어른들의 상황 때문에 서로 다른 출발선에 서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였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거나 계시지 않거나, 수입이 많거나 적거나에 상관없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기회를 동등하게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김제동 님이 기금을 조성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성된 기금을 기반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따스한 돌봄과 창의적 배움의 기회를 제공 하고 싶으며, 그런 기회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금 조성의 취지를 말해주었습니다. 〈환상의 짝꿍기금〉은 이런 김제동 님의 뜻을 담아 이 땅의 아동·청소년들이 동일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따뜻한 돌봄과 창의적 배움’을 지원합니다.

* 07

관세청

키다리아저씨 기금

기금조성자	관세청 임직원
기금조성일	2010년 10월 28일
지원사업	소년소녀가정 주거 지원사업
기금분류	사회공헌기금

2010년 10월 말 아름다운재단이 지원하는 소년소녀 가정에게 4천여 명의 키다리아저씨가 생겼습니다. 그 주인공들은 바로 관세청 임직원들로, 관세청은 2010년 10월 말 전국 4천 5백여 명의 임직원에게 자율적인 급여나눔 참여 신청을 받아, 아름다운재단에 <관세청키다리아저씨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참여한 임직원의 급여에서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여 <관세청키다리아저씨기금>에는 10월 급여나눔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미 약 4천여 명의 임직원이 기꺼이 참여를 시작하여 매월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임직원들의 참여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금 이름을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견들 중에서, 어려운 환경의 가정을 지키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든든한 ‘키다리아저씨’가 되자는 취지로 기금 이름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 기금을 통해 주거 위기에 놓인 소년소녀 가정을 좀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36

* 08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하는 다문화지원기금

기금조성자	한국수출입은행
기금조성일	2010년 11월 9일
지원사업	국내거주 이주민 모국어책 지원사업
기금분류	사회공헌기금

한국수출입은행은 매년 당기순이익의 1%를 사회 환원 재원으로 하여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는, 말 그대로 1% 나눔 기업입니다.

아름다운재단과도 이미 2007년부터 인연을 맺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보장기구 지원 사업, 실질적 소년소녀 가정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소외계층·소외지역을 위한 도서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국내 거주 이주민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모국어 책 지원 사업을 후원해 왔는데, 2010년, 안정적인, 장기적인 사업 지원을 위해 아름다운재단에 <한국수출입은행과함께하는다문화지원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개설로 국내거주 이주민을 위한 모국어 책 지원 사업은 ‘책 날개를 단 아시아’란 사업의 이름처럼, 더욱 힘차게 멀리 갈 수 있는 날개를 단 듯합니다.

꾸준히 국내 거주 이주민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한국수출입은행과 그 임직원들의 나눔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희망합니다.



2010 ANNUAL REPORT

아름다운재단 나눔가계부

아름다운재단 10년의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돈쓰기

2000년 8월 22일, 아름다운재단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부문화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버는 것에만 열중하는 사회에서 아름답고 명예롭게 돈쓰는 사회로 바꾸어 보자는 것”, 그 소망에서 아름다운재단은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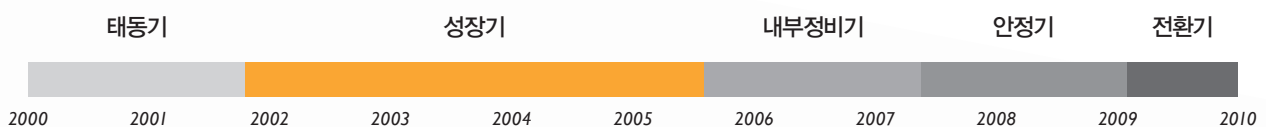
처음 4명의 정기 기부자로 시작한 아름다운재단은 2010년에 이르러서는 약 460억 원의 자산규모, 8만2천여명의 기부자, 160여개의 기금, 60여개의 배분사업을 수행하는 공익재단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아름다운재단은 새로운 나눔의 방식과 주제를 제시하며, 나눔문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편으로 지난 10년은 아름다운재단의 사회적 필요와 역할을 고민하며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전환기에 선 아름다운재단은 우리 사회의 좋은 자산, 우리 모두를 위한 공적 자산이 되기 위해 오늘도 고민과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아름다운재단 성장과 변화



태동기

2000년~2001년

- 이 시기 아름다운재단은 좀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인지도와 공신력 확보에 주력했던 시기였습니다. 아름다운 1%나눔, 맞춤형기금, 기업사회공헌프로그램, 연구사업 등 아름다운재단 주요사업의 기본틀이 완성되었고 1%나눔 참여자들의 증가와 함께 아름다운재단의 지지층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재단의 상징이자 대표 브랜드인 투명성 프로그램을 도입, 깨끗하고 도덕적인 아름다운재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장기

2002년~2005년

-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아름다운재단은 사업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참여를 위한 모금에 주력합니다.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아름다운가게와 공익포털사이트 해피빈 등 새로운 형태의 공익활동을 인큐베이팅했고 공익번호사그림 공감, 나눔교육, 희망가게 등 신규사업도 적극 추진합니다. 맞춤형기금과 기업사회공헌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가면서 모금의 규모도 확대되었고 배분사업도 점차 늘어나갔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과 제도변화를 요청하는 이슈캠페인과 배분사업으로 사회변화를 이끄는 나눔의 힘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내부정비기

2006년~2007년

- 성장을 거듭하며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되면서 아름다운재단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위한 온라인시스템 정비, 회계컨설팅과 외부감사제 도입 등 내부정비와 투명성 강화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재단은 자선적 시혜가 아닌 삶을 바꾸는 힘을 가진 나눔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기부자의 뜻을 투명하게 전달하고, 사회적 요청에 귀기울이는 나눔의 중개자이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참여하기를 권유하는 변화의 촉매자로 아름다운재단의 역할을 새롭게 다듬었습니다.

안정기

2008년~2009년

- 안정기에 접어들어 아름다운재단은 각 영역별로 균형잡힌 성장세를 이어갑니다. 모금은 급격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고, 배분은 꾸준히 증가합니다. 특히 아름다운재단의 차별적인 특징이자 강점인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연구사업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기부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사업은 법제도의 변화라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냈고, 비영리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은 현장감 넘치는 콘텐츠와 완성도높은 프로그램으로 공익단체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이 시기, 사업의 집중과 내실 강화를 위해 아름다운가게와 공익포털사이트 '해피빈'을 아름다운재단 사업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공익재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략적 전환기

2010년~

- 10주년을 맞이한 아름다운재단은 전략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지난 10년을 검허하게 되돌아보는 한편 미래의 전망과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또다른 10년을 준비하며 시민참여와 공익활동을 격려하고 키워가는 서포터재단을 꿈꿉니다. 나눔으로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스스로 가치를 높이고 성장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창의적인 시민참여모델을 제안하고,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인큐베이팅하기 위해 새로운 배분방식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시민과 함께, 공익단체와 함께 나눔의 생활화를 만들고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10년, 10가지 감동

2000

아름다운재단의 출발 _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돈쓰기

1999년 참여연대는 유산1%나눔을 중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돈쓰기운동>을 전개하며 시민공익재단 <아름다운재단> 설립을 제안한다. 이듬해 2000년 8월 22일, 아름다운재단은 우리사회에 새로운 기부문화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출발한다. <버는 것에만 열중하는 사회에서 아름답고 명예롭게 돈쓰는 사회로 바꾸어 보자는 것>, 그 소망에서 아름다운재단은 시작된다.

- 1999년 참여연대 <아름답게돈쓰기운동본부> 출범과 유산 1%나눔 전개
- 아름다운재단 창립총회 개최
- 맞춤형기금 제1호 조성 <김군자할머니기금>
- 아름다운재단·동아일보 공동캠페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돈쓰기> 전개
- 연말 기부자 송년행사 <나눔의식탁> 첫 개최

김군자할머니기금

... 아름다운재단 기금의 초석을 다진 '김군자할머니기금'

"이렇게 한 생애가 다 아픈 세월을 보내며 식물을 살고 단추를 끼우며 모은 전 재산을 그때 내 나이 내 처지 젊은 이들에게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은 내 대신 소박하고 아름답게 살아달라는 소망입니다. 외롭지만 다시 단란한 행복을 만들고 가꾸어 오순도순 사람답게 살아달라는 뜻입니다." - 도종환 <김군자 할머니의 열일곱을 위하여>

열일곱 살 때 일본군에게 끌려가 스무 살까지 중국에서 종군위안부로 살아야했던 김군자 할머니. 전쟁이 끝났지만, 부모도, 가족도 없던 할머니는 돌아갈 곳도 마음둘 곳도 없었습니다. '종군위안부'였다는 치욕스런 상처, 그렇지만 할머니는 그 상처를 다시 희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종군위안부피해자 정부지원금과 생계비를 절약해 모은 돈 5천만 원을 모두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한 것입니다. 그 돈은 할머니의 전 재산이자, 그동안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김군자할머니의 기금은 아름다운재단의 첫 번째 기금이 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보육시설에서 거주하거나 퇴소한 청소년들에게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1년간 교육비를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이 기금으로 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교육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재단의 기금사업에 초석을 다진 '김군자할머니기금'은 아름다운재단의 머릿돌에 새겨질 귀한 역사입니다.



2001

아름다운 1%나눔운동의 확산 _ 세상에 나눌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2001년 아름다운재단의 대표 브랜드, <아름다운 1%나눔>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과 함께 점차 확산된다. <아름다운 1%나눔>은 번듯한 거액만이 기부라고 생각되던 현실에서 일상적 기부, 소액기부의 새로운 모범으로 자리잡기 시작한다.

- 아름다운1%나눔 선포식 개최
- Giving Korea 첫 개최
- 기업사회공헌프로그램 첫 시작, <한솔교육 신기한나라만들기기금>
- 배분사업 첫 개시, <롯데리아 좋은세상만들기기금> 배분사업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총서 제1호, <아름다운 재휴> 발간
- 국내 최초의 비영리모금전문자료실 <류무종 기부문화도서관> 개소
- 아름다운재단 투명성프로그램 오픈

아
름
다
운
1%
나
눔

●●● 아름다운 1%나눔

이 세상에서 나눌 수 없는 것은 없기에, 아름다운재단은 우리 생활 속의 1%를 나누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01년 1월18일, 그렇게 아름다운재단의 1%나눔 운동은 시작되었습니다. 가진 게 힘 밖에 없다며 힘의 1%를 나누겠다는 한 청년, 또 대구의 환경미화원, 동해의 담배가게 아줌마, 화곡동의 버스기사와 목수 등 대단하진 않지만, 조금은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1%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중물이 된 그들의 1%나눔은 어느덧 아름다운재단만의 방식이 아니라, 기부문화 전반의 지형을 바꿔놓았습니다. 여성재단, 월드비전, 시흥시 등 다른 곳에서도 1%나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1%를 넘어, 2%, 5%, 10%를 나눌 수 있도록 더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2002

맞춤형기금의 활성화 _ 한 번의 단비를 넘어 마르지 않는 샘물로

〈김군자할머니기금〉으로 시작되었던 〈맞춤형기금사업〉은 2002년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확산된다. 아름다운재단이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소개한 〈맞춤형기금〉은 기부자가 희망하는 이름으로, 희망하는 영역에 쓰여지며 기부자의 명예와 철학, 기부자의 권한을 중시한다.

- 아름다운재단·문화일보 공동캠페인 〈1%나눔이 세상을 바꾼다〉 전개
- 사회문제, 사회이슈에 대한 시민참여의 긴급모금 캠페인 SOS 캠페인 첫 시작

아
름
다
운
가
게

●●● 우리는 자매단체입니다

아름다운가게는 나눔의 순환과 재활용 문화 확산을 목표로 200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기부하고, 재활용 물건을 구매하는 가게로 자리매김한 아름다운가게의 시작은 사회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가게는 2008년 7월에는 인력과 규모면에서 아름다운재단을 훌쩍 뛰어 넘어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게를 보유한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이제 독립법인으로 재출범되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모금과 배분을 중심으로 한 나눔 문화 확산에, 아름다운가게는 재활용 자선 가게와 대안무역을 중심으로 한 나눔문화 확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고동락해 온 두 법인의 분리에 대해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재단 문을 두드리고는 “여기 아름다운가게 아닌가요?”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는 자매단체입니다”라고 더 크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가게

2003

기업사회공헌 프로그램 증가 _ 성공하는 기업의 조건, 나눔

아름다운재단은 준조세적 기업기부의 관행을 비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주목한다. 기업정신에 부합하는 사회공헌,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사회공헌, 기업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 2003년에 들어 기업기부의 새로운 흐름과 함께, 아름다운재단에 기업기부가 크게 증가한다.

- 아름다운재단·MBC 공동캠페인 〈365일 따뜻한세상〉 전개
- 추모기금 (장원 서성환의 아름다운세상기금) 조성
- 저소득 단전단수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빛한줄기물한방울〉 캠페인 전개
- 연말 기부캠페인 〈올래올래크리스마스〉 전개

저소득층 단전가구 지원 사업

●●● 빛 한줄기, 희망 한줄기

2003년 7월 한 신문에는 짙막한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더운 여름 냉장고, 선풍기조차 켤 수 없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기사는 전기료를 낼 수 없어 단전에 처한 저소득가구의 어려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어진 첫날, 선풍기를 돌릴 수 없어 비지땀을 흘리며 캄캄한 방에서 잠자는 애들을 보고 있으면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요즘 세상에 전기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돈 몇 푼 없어 자살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름다운재단은 저소득가정의 최소한 생활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저소득층 단전가구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단전에 처한 가구들의 연체 전기료를 대납하는 지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3년부터 2008년 동안 이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가구는 1만여 가구. 이들을 위해 1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지원되었습니다. 2008년 겨울을 마지막으로 종료된 이 사업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단전 유예 조치, 보건복지부의 빈곤층 조사 및 신고접수, 혹서기, 혹한기 단전유예 시행령, 전류제한장치 설치 등 다양한 정책 변화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중 120만 가구가 에너지 구입비용으로 가구소득의 10%이상을 지출하는 에너지 빈곤층으로 추정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두 번째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계층을 위한 지속적이고도 효과적인 지원방법은 무엇인지 등 풀어야 할 많은 숙제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2004

배분사업의 본격화 _ 이웃의 고통에는 가장 가까이에, 미래의 대안을 위해서는 가장 멀리

2004년 아름다운재단 배분사업이 본격화된다. 아름다운재단 배분사업은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는 따뜻한 연대를, 고통스런 현실을 만들어내는 사회구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한다. 또한 공익단체의 성실한 파트너로서, 단체의 사업에서부터 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의 재충전에 이르기까지 공익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

- 1%기금 <변화의시나리오> 배분사업 첫 실시
- 공익번호사그룹 <공감> 구성
- 아름다운재단·한겨레신문 공동캠페인 <나눔으로 아름다운 세상> 전개
- 아름다운재단·참여연대 공동캠페인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전개
- 나눔의 세대를 키우는 <나눔교육> 사업 개시
- 국내최초 기부문화 전문연구기관 <기부문화연구소> 개소
- 유엔컨설팅센터 개소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2004년 여름,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 하월곡동은 수많은 정치인과 장관들이 빈곤을 체험하기 위해 다녀갔습니다.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이 공동으로 진행 한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희망UP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7월 한달 간 진행된 이 캠페인은 시민들이 최저생활 수준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다시 최저생계비 실제측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 현직 보건복지부 장관, 국가인권위원장까지 1일 체험에 참여하는 등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는 데는 성공했지만,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생계비를 현실적으로 인상시키려는 목표는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캠페인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빈곤에 대해 가지는 선입견과 빈곤 정책에 대한 편견, 최저생계비에 대한 이중적 태도에 균열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10년 아름다운재단은 또 다시 최저생계비 실제측년도를 맞아 정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의 기준’을 결정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바라며 2010년 희망 UP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05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포털사이트 구축, 교육과 연구사업 안착 _ 기부는 과학이며, 예술이다

성숙한 기부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 기부문화연구소와 기부문화도서관이 새롭게 정비된데 이어 온라인 기부문화의 새로운 장을 펼친 공익포털사이트 <해피빈>이 오픈하면서, 아름다운재단은 기부 문화 본산지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 공익포털사이트 <해피빈> 오픈
- 아름다운재단 · 경향신문 공동캠페인 <행복UP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전개
- 아름다운재단 · 우토로국제대책회의 공동캠페인 <우토로살리기> 전개

우 토 로 살 리 기 지 원 사 업

... 우토로, 끝나지 않은 이야기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일본 강제 징용 조선인들이 함께 사는 마을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나 있었을까요.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 마을에 우물을 파고 판자집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있는 마을을. 2005년 8월, 우토로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우토로의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낯선 우토로 땅을 일방적으로 매각해버렸던 겁니다. 우토로 주민들은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에 거주권 보장을 호소했지만, 일본 최고 재판소는 우토로 주민들의 강제 철거를 확정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우토로의 주민들은 이 땅에서 쫓겨나가 싶었지만, 이 소식을 들은 국내의 시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토로에 대한 엄청난 사회적 관심과 수억 원에 이르는 성금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토로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2008년 9월까지 총 천 일 동안 모금을 실시했고, 769,051,793원을 모금했습니다. 우토로에는 지금 토지 소유와 기념관 건립을 위한 공익재단이 설립됐습니다.



2006

나눔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끈 나눔교육의 확산과 전파 _ 나눔의 세대를 키운다

2004년 시작한 <나눔교육> 사업이 정착, 확산되며 기부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는 나눔교육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한편 유산을 사회에 남기는 방법을 제시하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아름다운이별학교>를 시작하며, 나눔교육 영역을 점차 확장해간다.

- 제1기 <아름다운이별학교> 개최
- 기부자 참여프로그램 확대 (지역기부자만남, 신규기부자 초청행사, 동호회 등)
- 뉴욕아름다운재단 창립

아
름
다
운
이
별
학
교

●●● 이별이 정말로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이별에 익숙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언제나 이별은 갑작스럽고, 낯설고, 정신없이 맞이하게 됩니다. 영원한 이별이 될지 모르는 죽음 역시 그렇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대면하고 준비한다는 것, 참 낯설게만 느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이별학교>에선 죽음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사회에 남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별학교의 수업은 4주 동안 진행됩니다. 1주차에는 기쁘거나 때로는 슬펐던 삶의 여정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2주차에는 평소에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움과 미안함을 담아 친구와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3주차에는 유산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4주차에는 현직 회계사와 변호사를 초청해 사망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배우고 유언장을 써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름다운이별학교>는 단순히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나를 포함한 가족, 주변 사람 사회로 확장되는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과 사회를 만드는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직도 유산을 놓고 형제자간에 혈투가 벌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아름다운재단의 이별학교를 통해 죽음을 준비하고, 나와 사회를 돌아보는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2007

비영리컨퍼런스 등 비영리역량강화 프로그램 본격화 _ 세상을 바꾸는 두개의 심장

비영리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아름다운재단의 고민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2004년 <비영리강의시리즈>로 시작했던 비영리단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2007년 <비영리컨퍼런스>로 탈바꿈하여 새로운 방식과 현장감있는 콘텐츠로 비영리단체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 제1회 <비영리컨퍼런스> 개최
- 국내 거주 이주민을 위한 모국어책 지원 캠페인 <책날개를 단 아시아> 전개
- <나눔교육센터> 개소

비
영
리
컨
퍼
런
스

●●● 풀뿌리를 살찌우는 모금 전문가를 만드자

찬바람이 불면 비영리단체들은 바빠집니다. 일일호프나 후원회 밤 때문이죠. 봄이 오면 또 다시 바빠집니다. 바자회, 건기대회, 마라톤대회 때문인데요. 이렇듯 다양한 행사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빠듯한 단체의 살림살이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위기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힘들어진 만큼 단체들의 운영도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정권 교체는 정부지원금과 기업 후원금마저 끊기게 만들었지요. 이런 사회적 변화가 비영리단체들에게는 크나큰 위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영리컨퍼런스>는 국내비영리단체들의 고민을

나누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모금 전략과 방법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기부자, 회원,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단체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비영리컨퍼런스>는 현재 모금의 사회적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한국적 사례를 만들어나가는 유일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풀뿌리모금시장을 신설해 모금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전환은 물론, 풀뿌리모금의 좋은 사례를 발굴, 지원하는 기회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몇몇 대형 시민단체를 제외하면 모금의 필요성만 절감할 뿐 인력 부족과 모금 전략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8

사회변화를 위한 참여와 이슈캠페인 전개 _ 나눔의 지혜로운 안내자

나눔의 지혜로운 안내자가 되고자 한 아름다운재단은 그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슈캠페인과 참여캠페인을 전개한다. 우토로를 위한 <마지막 희망모금>, 그리고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식을 바로잡는 <책날개를 단 아시아>, 그리고 <꿈을 담은 모금함> 연말캠페인에 이르기까지, 이슈레이저로 변화를 시도했다.

- 아름다운재단·희망제작소 공동 <지역재단포럼> 개최
- 풀뿌리모금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한 제1회 <풀뿌리모금상> 개최
- <우토로살리기 마지막희망모금> 캠페인 전개
- <책날개를 단 아시아 Season2> 캠페인 전개
- 시민참여와 나눔문화확산을 위한 연말이벤트 <꿈을 담은 모금함 무지개상자> 캠페인 전개

책날개를 단 아시아

●●● 책이여, 날개를 달고 아시아로 훨훨

2006년 아름다운재단은 당시 새로 도입된 이주노동자 정책인 고용허가제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송출실태도 파악했습니다. 그 조사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 전문 활동가 교육지원을 통해 이주노동자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이 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007년, 아름다운재단은 다시 이주민의 인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의 국내 정착을 위해 원어민들의 책을 지원하자는 거였습니다. 2008년은 2007년에 이어 책날개를 단 아시아 캠페인이 시즌2를 맞이했던 해입니다. 첫 회에 총 2,206권, 1.3톤이 넘는 도서 지원을 시작으로 라오스, 필리핀, 중국, 러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 등 모두 23,000여 권의 도서를 49개 도서관에 지원했습니다.



2009

아름다운재단 내일을 위한 새로운 방향과 전략의 모색 _ 희망은 지지 않습니다

10주년을 앞둔 아름다운재단은 새로운 역할을 위한 모색을 시작한다. 나눔의 중개자이자 변화의 촉매자로 역할을 수행했던 아름다운재단은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나눔의 생활화>를 새로운 미션으로 정하고 <시민공익활동을 키워가는 창의적 서포트 재단>으로 역할을 가다듬으며 새로운 미래의 기틀을 다져나갔다.

- 아름다운재단·희망제작소 공동 <모금가학교> 개최
- 비영리 관련 연구, 조사, 출판, 자료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나눔지식아카이브> 오픈
- 연말캠페인 <희망은 지지 않습니다> 캠페인 전개

희망은 지지 않습니다

●●● 이제,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자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길거리에 흔하게 뒹구는 게 바로 낙엽입니다. 하지만 이 낭만적이지만 한 그 낙엽이 누군가에게는 '겨울채비에 대한 불안'과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 정치 상황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풀뿌리단체들에게도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2009년, 아름다운재단 간사들은 길거리의 플라타너스 잎을 모았습니다. 그 나뭇잎에 "희망은 지지 않습니다"라는 글씨를 새기고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낙엽이 가지는 "떨어진다", "없어진다"라는 메시지를 '희망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로 바꾸고 힘을



시절을 함께 이겨내자고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희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도 타인을 위해 기부에 동참하는 평범한 시민들로 인해 희망은 ‘지지 않고’, 지역에서 인권의 후퇴와 소통의 부재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풀뿌리 공익단체들이 있는 한 희망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지난 10년도 그랬으며, 앞으로도 그러

2010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10년, ‘첫 나눔’의 기억_ 나눔문화의 또 다른 진화

아름다운재단의 10년, 시끌벅적한 창립행사보다는 다시 “첫 나눔”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첫 나눔”은 나눔의 근본적인 모습으로,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를 키워보자며 뛰어온 아름다운재단이 지금 어디쯤 와 있으며, 또한 어디로 가야하는가 질문을 던져보았다. 지난 10년간 아름다운재단은 나눔에 대해 가졌던 오래된 전통적 가정에 도전하면서 성장해왔다. 나눔의 가치를 늘 새롭게 정의하면서, 거침없는 상상력으로 나눔운동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왔다. 지난 10년간 걸 어온 나눔의 길을 겸허하게 돌아보며,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한해로서 2010년은 나눔과 아름다운재단에 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경청,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새로운 사업 준비, 적극적인 제안과 대안제시를 통한 “나눔문화의 또 다른 진화”를 준비하고자 한다.

- 창립 10주년 기념 사이트 – “나눔으로 함께 만든 10년” 사이트 오픈 <www.10by10.or.kr>
-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 – “단추수프축제” 개최
- 창립 10주년 기념 <7빙코리아 2010> 개최
- 창립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던 나눔에 관한 질문들” 개최
- 아름다운재단 특별 모금 캠페인 “결식0제로” 전개

결식제로 캠페인

●●● 어른들 싸움에 아이들 밥 굶는 나라

결식아동 1백만 시대와 경제 불황이라는 현실 속에서 2009, 2010년 일시적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0만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이 지난 2010년말 겨울방학을 앞두고 전액삭감 된 것입니다. 결식아동을 위한 500억 예산이 한 순간에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한시적 예산지원이었다고는 하나 결식아동의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닌데, 완전히 사라진 예산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름다운재단은 겨울방학 내 굶을 아이들을 위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한 달간 진행된 짧은 기간, 하지만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총 5,686명 참여, 284,766,575원이라는 큰돈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시일반의 기부로 4천여 명의 아이들이 결식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식아동들의 급식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올 여름방학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부자 여러분의 관심과 정부의 노력 속에 우리 사회 결식아동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희망하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4천여 명의 아이들을 먹여 다행이었고, 4천여 명만 먹여 미안했고, 4천여 명만 먹일 수 있어서 화났던 캠페인”





아름다운재단 대표브랜드

아름다운재단은 10년간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나눔의 주제와 방식을 제시하며 나눔문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한편으로 지난 10년간은 아름다운재단의 사회적 필요와 역할을 고민하며 시행착오를 거듭해온 시간들이기도 하다. 그 결과로 아름다운재단이 만든 브랜드이자 우리 사회 기부문화를 대표 할만한 브랜드, 아름다운재단을 선도적 역할 단체, 창의적 활동 단체로 평가받게 해 준 대표적인 사업을 브랜드로 묶어 보았다.

아름다운 1% 나눔

- 풀뿌리 기부문화의 전형으로서 아름다운재단이 말하는 기부문화의 상징이 된 사업
- 시민참여의 기부방식이자, 아름다운재단 활동의 신뢰와 지지의 기반이 된 사업
-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나눔, 그러나 함께 모이면 큰힘이 되는 나눔의 시작을 상징하는 사업으로 시작
- 시민모금가, 이슈캠페인 등 행동하는 기부자, 변화를 만드는 나눔으로 성장

맞춤형기금

- Community Foundation DAF(Donor Advised Fund) 개념을 도입한, 고액기부 모금을 위한 아름다운재단 대표적이고 독자적인 모금방식
- 〈Foundation in Foundation〉의 개념을 담아 고액기부자에게 명예와 권한을 부여
- 맞춤형기금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모금기관에서도 기금사업을 도입하기 시작
- 아름다운 1%나눔과 함께 아름다운재단의 창발적 모금방식으로 평가받음
- 맞춤형기금사업으로부터 현재 희망가게, 연구사업 등 다양한 독립사업이 출발

기빙코리아

- 한국인(한국기업)의 기부실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인식과 태도 파악을 위한 기부인덱스
- 기부인덱스와 함께 국제적인 기부이슈를 주제로 다루는 국제기부문화 심포지움 개최
- 과학적·체계적·전국적 조사연구로, 국제 비교가 가능한 국내 최초의 신뢰할 만한 지속적인 기부 서베이로 평가받음
- 모금·배분을 뛰어넘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아름다운재단의 역할을 상징하는 사업

나눔교육

- 〈나눔의 세대를 키운다〉는 슬로건을 내건 나눔백년지대계 프로젝트
- 기부와 관련된 새로운 트렌드이자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나눔교육 분야에서 우위 선점
- 나눔교육을 시작으로 연구조사에 이어 교육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기부문화 본산지로서의 아름다운재단 위상을 강화

투명성프로그램

- 아름다운재단의 도덕성, 신뢰성, 공정성 등을 상징하는 가치이자 대표적인 콘텐츠
- 아름다운재단 투명성 프로그램을 계기로 NGO, NPO의 투명성이 본격적 이슈로 제기
- 회계장부 전체와 간사급여까지 공개하는 파격을 시도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음
- 기부내역확인시스템(마이페이저), 온라인기부결재, 회계와 기부데이터의 공정하고 정확한 관리를 위한 기부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온라인 환경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 배분사업보고서 〈나눔가게부〉, 연간보고서 발간 등 투명성 커뮤니케이션 강화

“1% 나눔으로 함께 끓이는 단추수프를 맛보다”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 <단추수프축제>

아름다운재단의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1% 나눔’을 전하는 <단추수프축제>가 열렸습니다. <단추수프축제>는 유난히 하늘이 맑았던 10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장지동 가든파이크 옥상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천7백여 명의 시민과 4백여 명의 재능기부자들의 많은 참여로 풍성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단추수프축제>는 동화책 ‘단추수프’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단추수프’는 가난한 마을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온 한 나그네가 단추 하나로 마을 사람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수프를 끓이는 이야기입니다. 그 단추 하나의 기적은 서로가 한 개씩

가져온 수프의 재료에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어쩌면 작고 보잘 것 없을 그 재료들을 한꺼번에 모아 끓이니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훌륭한 수프가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이 펼쳐온 ‘1% 나눔’ 운동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기부한 금액은 1%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모이니 그 가치는 엄청나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 작은 것 하나씩을 나누면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눔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것. 아름다운재단은 그것을 직접 실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단추수프축제>의 시작은 그랬습니다.



**‘나눔 마을’은 누구나 서로 나누며 사는 마을입니다.
아직은 상상 속의 마을이지만 7시간의 ‘나눔 마을’에서는 현실의 마을이었습니다.**

<단추수프축제>는 400여 명의 재능기부자와 자원봉사자들의 열정과 진정성으로 빛이 났던 축제였습니다. 모인 사람들도 참 다양했습니다. 7세 아이부터 80세 할아버지, 초·중·고·대학생, 직장인, 취업준비생, 주부들까지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또 이날 하루를 위해 멀리 부산에서 온 자원봉사자, 하루 가게 매출을 포기하면서 참여한 기부자, 스케줄을 조정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축제 사회를 해준 박경림 씨와 이금희 아나운서, 맛있는 수프를 대접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요리를 해준 에드워드 권 셰프까지 자신의 시간, 돈, 노력을 기꺼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축제를 앞두고 1주일 전 재능기부자와 자원봉사자들은 3일에 걸쳐 사전 모임을 가졌습니다. 단추수프축제의 취지와 전체 진행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단합의 시간을 보내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축제를 기대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 운영한 50여개 재능 나눔 부스는 재미와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그 분들의 재능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구두 잘 닦는 법, 10초 안에 초상화 그리기, 재활용 단추브로치 만들기, 도시에서 텃밭 가꾸기, 자전거로 생과일주스 만들기, 친환경 티셔츠 만들기, 손쉽게 커피 내리기, 연꽃 만들기, 옷걸이로 책거치대 만들기, 신혼여행 싸게 가는 노하우 전수, 컵케이크 만들기, 언어영역 공부 노하우, 별자리로 보는 인생 컨설팅 등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나눔 마을의 마을 사무소에서는 스타 셰프 에드워드 권의 레시피로 만든 야채 수프를 아침부터

축제를 마치는 저녁까지 계속 끓이며 참여하신 3천여 명의 시민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가수들의 공연과 스토리가 있는 경매 프로그램이 축제의 재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10년을 동행해 주신 기부자들과 축제를 함께 만들어준 재능기부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리며 즐거운 축제를 마쳤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나누어 보아요’

자신의 작은 나눔이 이웃을 즐겁고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 <단추수프축제>를 통해 얻은 새삼스러운 진리였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은 나눔 마을의 자원봉사자들과 재능기부자들의 즐겁고 행복한 표정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동기가 되었다면 바로 그것이 축제의 큰 성과일 것입니다.

현장에서의 미숙함과 아쉬움, 성과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등 축제의 마무리는 엄격하고 진지했습니다. 동화책 ‘단추수프’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서로 돕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나누며 사는 마을에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누며 사는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단추수프축제>도 같은 결말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나누어 보아요. 세상에 나눌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참가한 시민들이 블로그에 올려주신 소감입니다.

소감 1

“단추수프축제는 모두가 행복한 나눔의 마을이었고, 나눔의 기적을 만들어 낸 사람들이 모인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소감 2

“하루 종~일 아이들과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모두 공짜로~ 많은 것을 얻었으니... 더 많이 나눠야겠습니다.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요.”

소감 3

“내가 가진 것의 1%를 다른 이들에게 기부할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진 것을 쉽게 내놓지 못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기 바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1%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나 역시 나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우연히 알게 된 아름다운재단의 단추수프축제, 단 하루만의 축제라 너무 아쉬웠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또 축제가 열린다면, 더 일찍 가서 오래오래 많이 보고 그뻐, 나도 내가 가진 재능을 기부했으면 좋겠다”

축제 결과보고

| 행사개요 |

일시 2010년 10월 9일 (토)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서울 장지동 가든파인브 옥상정원

| 결과개요 |

참석자 일반시민 2천3백여 명 /
재능기부자, 자원봉사자 400여명

| 축제 프로그램 |

재능나눔부스 54개
오프닝 이금희아나운서, 개막식 및 공연
단추수프 에드워드권, 문성실, 보도웅 사진촬영
나눔복덕방 1천만원 특별배분, 일일배분심사원체험
경매토크쇼&엔딩 박경림 진행, 연예인 공연

| 행사주제 |

1% 나눔으로 함께 끓이는 단추수프축제

다른 삶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13인의 지혜

창립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던 나눔에 관한 질문들>

“선의는 선행을 낳지 않는다!”

지난 11월 4일(목), 건국대 새천년 기념관에서는 아름다운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던 나눔에 관한 질문들>이 개최됐습니다. 네이버 해피빈 후원으로 약 7시간 동안 13명의 연사들을 모시고 기부문화의 과거와 미래를 엿보는 기회였습니다.

논객 김어준, 홍기빈을 비롯해 김진혁 EBS 프로듀서,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조한혜정 교수와 한국과학기술원 안철수 석좌교수, 시골의사 안동신세계연합클리닉 박경철 원장 등에 더해 전문 강연자는 아니지만 최근 주목받는 사회적기업 중 하나인 노숙인 잡지 ‘빅이슈’와 새로운 주거공동체를 실험하면서 주목받는 해방촌 게스트하우스 ‘빈집’의 장기투숙객 등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무대에 선 것입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6시까지 펼쳐진 이번 컨퍼런스는 따분한 학술대회처럼 지식을 주입하고 습득하는 장이 아닌, 강연자들이 “무엇을 하라”고 정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생각해보자”고 이야기하고 “지식”보다는 “실마리”를 전하고자 강연 내용뿐 아니라 형식도 새롭게 진행됐습니다. 최근 새로운 컨퍼런스의 형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TED처럼 각 강연자별 강연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고, 점심시간 등에는 <좋아서 하는 밴드>의 공연과 국립국악원 연주자 조결의 연주와 강연이 접목된 새로운 방식의 강연 또한 시도되었으며, 특히 2부 강연자 중 노숙인 잡지 ‘빅이슈’의 경우 강연내용 중 일부를 마임이스트 박진신씨의 몸짓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부, 나눔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보다는 “더 웃고 더 즐겁고, 더 풍성해지는 다른 삶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컨퍼런스였습니다.

컨퍼런스에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총 691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중 개인이 52%, 단체가 48%의 비율로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높았는데요. 중고대학생, 기업이 단체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총 38명의 자원활동가가 전체 강연을 영상, 속기, 일러스트, 사진 등으로 기록하여 이후 기록물을 해피빈사이트와 단체

등에 DVD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네이버지식인과 함께 “우리시대의 명사들이 지식in에 나눔을 묻습니다”라는 사전이벤트를 9월 30일부터 10월24일까지 한 달 간 건축가 승효상, 방송인 김제동 등 총 16명의 명사가 참여한 가운데 명사들이 나눔에 관련한 질문을 던지고, 지식in들이 답변하는 방식을 통해 총 8,391개의 답변, 조회수 총 5,479,123회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강연을 듣는 객체가 아닌 적극적인 청중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장에서 미투



“누구에게 혜택을 받았듯이 나 또한 다른 누군가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네요. 저만 컨퍼런스에 다녀와 아쉬웠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환우회가 더 깊은 고민과 행동으로 많은 환우분들을 도울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힘이 나네요.”

한국백혈병환우회 박진석 사무국장

데이를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 또 각 강연자의 강연 종료 후 최은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청중들이 낸 참가비 15,000원 중 5,000원씩을 적립하여 당일 강연(강연자)중 “가장 공감이 가는 나눔”에 대해 직접 청중들이 선정하고 해당 단체에 사업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당일 1등 단체는 노숙인 잡지 빅이슈가 선정되어 총 2,805,000원을 노숙인 축구단 운영사업비로 지원받았습니다. 나머지 참가비는 아름다운재단 공익 1%기금에 적립되어 공익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컨퍼런스 결과보고

| 행사개요 |

일시 2010년 11월 4일 (목) 오전 9시-오후 6시

장소 건국대학교 새천년 기념관

| 결과개요 |

참석자 전체 신청자 600명 / 현장 참여자 602명 /

전체 행사참여자 691명 * 자원활동가, 스태프 포함

강연주제 총 11개 - 강연자 15명 * 해방촌 게스트 하우스 3명, 빅이슈 2명

- 공연팀 2팀 * 좋아서하는밴드, 조결

| 현장 및 사전이벤트 |

- 6개 현장 이벤트 및 2개 사전 이벤트 진행

- 얼리버드 이벤트, 모금스피치 이벤트

- 해피톡 이벤트 * 해피톡 선정 20개 단체, 총 355명 관람

- 해피빈특별상, 도서전시 및 판매

- 네이버 지식in과 함께하는

“우리시대의 명사들이 지식in에 나눔을 묻습니다”

* 참여인사 16명, 참여자 답변 8,391개, 조회수 5,479,123회

- yes24와 함께하는 나눔댓글 이벤트

강연자 한마디

“전통적 기부는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에게 시혜적으로 나눠주는 것이라면, 미래의 기부는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사회 각 구성요소들(정부, 기업, NGO 등)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아닐까?” 또한 “정부가 그걸 잘 조율하는 모습이 미래의 기부 모습이 될 것” - [안철수 <안철수연구소 이사회 의장>](#)

“29만원밖에 없으신 전직 대통령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질 것 같다. 그 당시 정권이 내세운 구호는 정의 사회 구현이었다. 어느 조직의 사훈이나 급훈 등을 보면 결국 그 조직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을 볼 수가 있다. 요즘 나눔에 대해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이야기되는 것도 결국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박경철 <안동신세계연합클리닉 원장>](#)

“사회전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회 전체 가치를 올리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가슴에 손을 얹고 피라미드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할 수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40여년 간의 짧은 기간 사이에 돈의 축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회가 우리사회이다. 모든 것을 투자로 인식하고, 세금으로 생각한다. 세금을 냈으므로 나눔은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적 경제가 아닌, 호혜적 경제는 그 순환이 굉장히 같다. 부모가 자식에게 잘 하는 것이 투자효과를 다음 세대로 이어지길 기대하듯...” - [조한혜정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예전엔 나쁜 일하는 사람들이 불안 초조했는데, 요즘엔 모두가 다 불안 초조해 하는 시대, 우리안의 바람을 빼야한다”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나누며 사는 존재이다” - [도법스님](#)

“그런 마음은 표현하는 몇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슴에 다 의심을 품고 있다. 그 의심을 풀기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더 열심히 해야한다.” - [김진혁 <EBS 프로듀서>](#)

기부문화, 길을 묻다

제10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0〉

지난 10월 22일(금),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는 아름다운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제10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2010”이 개최되었습니다. 유한킴벌리와 아름다운재단이 공동주최하고, 하나은행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은 2009년 한국인의 개인 기부지수 발표와 10년의 기부문화 추이분석, 향후 한국사회를 전망하는 기부트렌드를 제시한 시간이었습니다.

☀ 숫자로 보는 〈기빙코리아 2010〉 –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의 한국인의 기부지수 분석결과

기빙인덱스 2010	2009년 한 해 동안 기부참여 55.7%, 10년간 국민 1인당 평균 기부액은 99,000원
	2009년 자원봉사활동 참여비율은 23.9%, 국민 1인당 자원봉사 활동 평균시간은 14.8시간
기빙인덱스 10년 분석결과	2000년 평균 기부금 9만9천 원
	2009년 평균 기부금 18만2천 원
국내 최초 나눔 총량 추계	2009년의 경우 약 8조 4천억 원으로, 정부예산의 약 3.1%를 차지하는 규모이고, GDP대비 0.79% 규모의 금전적 가치로 분석
	2009년 최저임금으로 환산 시 2조1천8백80억 원 규모로 263,752명의 근로와 동일

☞ 지난 10년간 개인 순수기부금이 두 배 늘어났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이 지난 10년간의 한국인의 개인기부지수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순수기부와 종교기부, 경조사비 기부 모두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종교기부와 경조사비, 순수기부 중 순수 기부금액은 정기기부의 증가 반영되어 IMF 경제위기 기간의 조사 즉, 2000년 기부자 평균기부금 9만9천 원에서 2009년에는 1인당 18만2천 원으로 약 2배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 한국사회 기부와 자원봉사를 포함한 나눔총량 최초 추계를 시도했습니다

‘기빙코리아 2010’에서는 한국인의 기부 및 일반 자원봉사 총규모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 보는 연구가 최초로 이루어졌습니다. 2009년의 경우 약 8조 4천억 원으로, 정부예산의 약 3.1%를 차지하는 규모이고, GDP대비 0.79% 규모의 금전적 가치로 분석되었습니다. 한국인은 2009년 한 해 동안 국민 1인당 평균 9만 9천 원(소수의 초고액 기부자 포함한 평균 17만 3천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자원봉사활동의 금전적 가치는 2009년 최저임금인 4천원으로 환산했을 때 2조1천8백80억 원 규모이며, 263,752명의 근로를 하는 것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오후에는 ‘기부문화 트렌드 2020’ 이란 주제로 기부선진국에서 주목해야할 이슈로 해외강연자를 초청하여 미국의 부와 자선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계획기부(Planned Giving)를 제시하였습니다. 미국 부유층 기부 관련 최고의 석학으로 〈Nonprofit Times〉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비영리 50인”에 5번이나 포함되었으며, 미국 부유층 기부분야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폴 셰비시(Paul G. Schervish)교수와 계획기부 금융상품 설계전문가 미국 Texas Tech 대학의 대학원 계획기부학과 러셀 제임스(Russell N. James)교수가 한국이 기부선진국으로 가기위해 주목해야할 과제와 미국의 계획기부 현황 및 필요성, 제도 등에 대해 강연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한국인의 기부지수를 분석하고 국내 최초 나눔 총량을 추계해본 이날 행사에는 시민사회단체 실무자 35%, 사회복지단체 실무자 36%, 기업사회공헌 담당자 13%, 교수 및 학생 8% 등 총 280여명의 다양한 비영리영역의 실무자 및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한국인의 기부지수와 향후 기부트렌드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빙코리아 조사 개요

모집단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수 1,035명 조사방법 대면면접조사 조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조사기간 2010. 7. 19 - 8. 23 조사의뢰기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연구진 강철혁(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민인식(경희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2010 ANNUAL REPORT

아름다운재단 나눔가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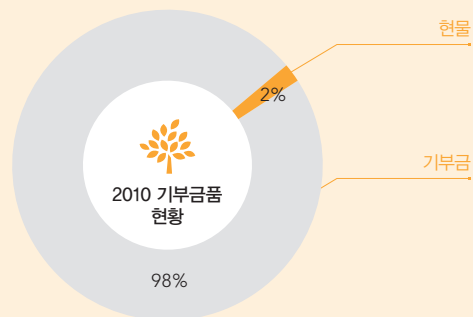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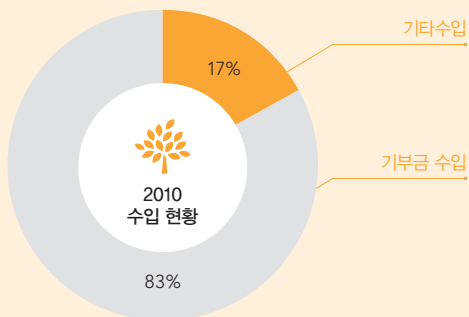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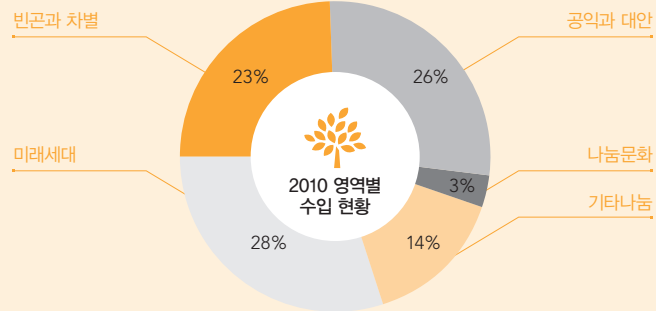
아름다운재단 **살림살이**



한눈에 보는 아름다운재단의 재정

2010년 수입현황

기부금수입	구분	영역별	금액	구성비율		
	기금수입	공익과 대안	2,116,689,590	26%	98%	83%
		나눔문화	212,280,291	3%		
		미래세대	2,255,419,038	28%		
		빈곤과 차별	1,898,316,318	23%		
		기타나눔	1,136,191,023	14%		
	운영후원금	운영기금	415,176,770	5%		
	현물기부금	현물기부	143,997,225	2%	2%	
	소계		8,178,070,255	100%	100%	
기부금외 수입	기금 운용수입		1,280,731,200	75%		17%
	보유주식 처분이익		329,257,900	19%		
	수익사업수입		48,548,344	3%		
	기타수입		49,793,809	3%		
	소계		1,708,331,253	100%		
합계		9,886,401,50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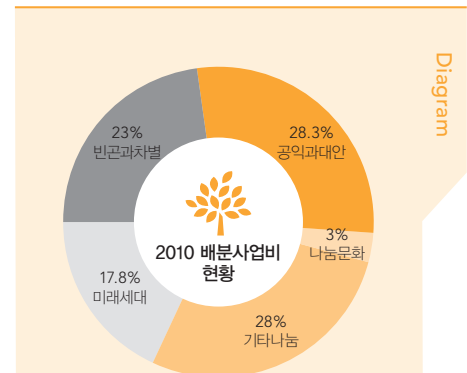
Diagram

2010년 지출현황

사업비	구분	영역별	금액
	기금지출	배분사업비	6,680,808,293
		배분사업 관리비	118,602,317
		수익사업비용	43,604,016
		현물지원비	107,343,570
	소계		6,950,358,196
운영비	인건비		979,515,068
	관리비		641,525,485
	소계		1,621,040,553
지출총계			8,571,398,7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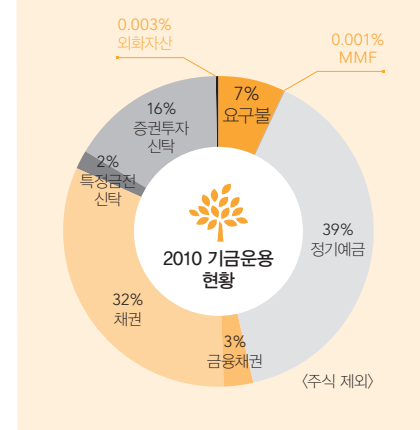
2010년 영역별 배분사업비 현황

구분	2010	영역비율
빈곤과차별	1,539,366,322	23.0%
공익과대안	1,889,602,329	28.3%
나눔문화	197,271,851	3.0%
기타나눔	1,868,256,915	28.0%
미래세대	1,186,310,876	17.8%
합계	6,680,808,29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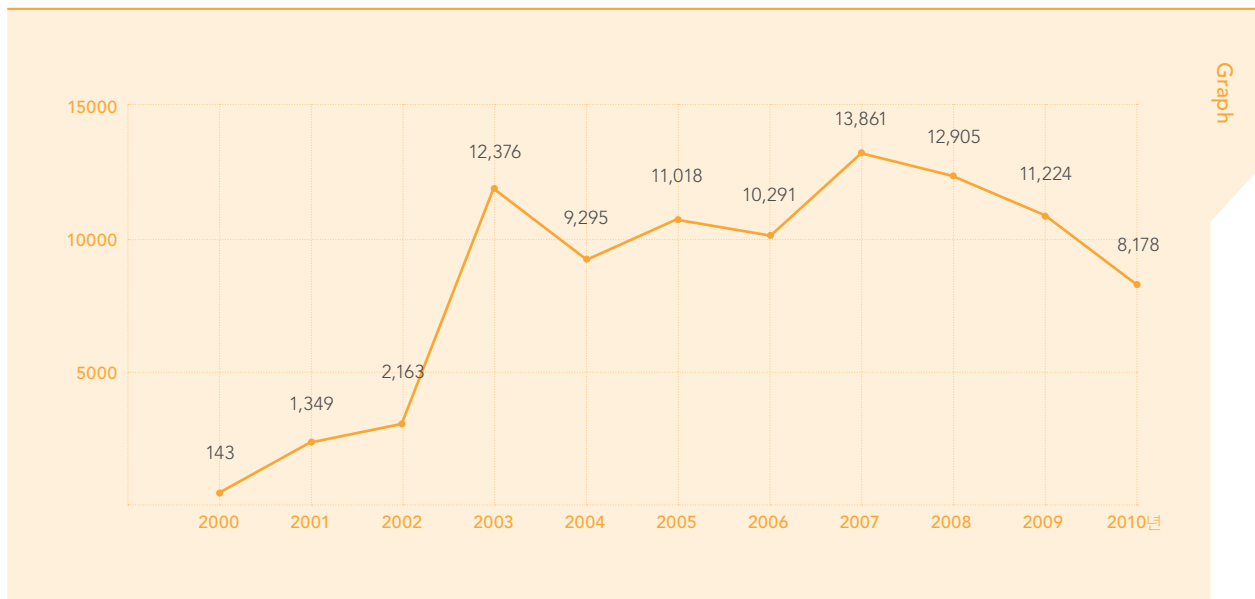
아름다운재단 기금운용현황 <2010년 12월 31일 현재>

항목	구분	금액	구성비율
예금 등	요구불	2,313,393,810	7%
	MMF	314,419	0.001%
	정기예금	13,000,000,000	39%
	금융채권	1,000,000,000	3%
	채권	10,510,729,484	32%
	특정금전신탁	810,517,170	2%
	증권투자신탁	5,426,266,963	16%
	외화자산	906,482	0.003%
계		33,062,128,328	100%
주식	주식	12,334,921,500	27%
총계		45,397,049,82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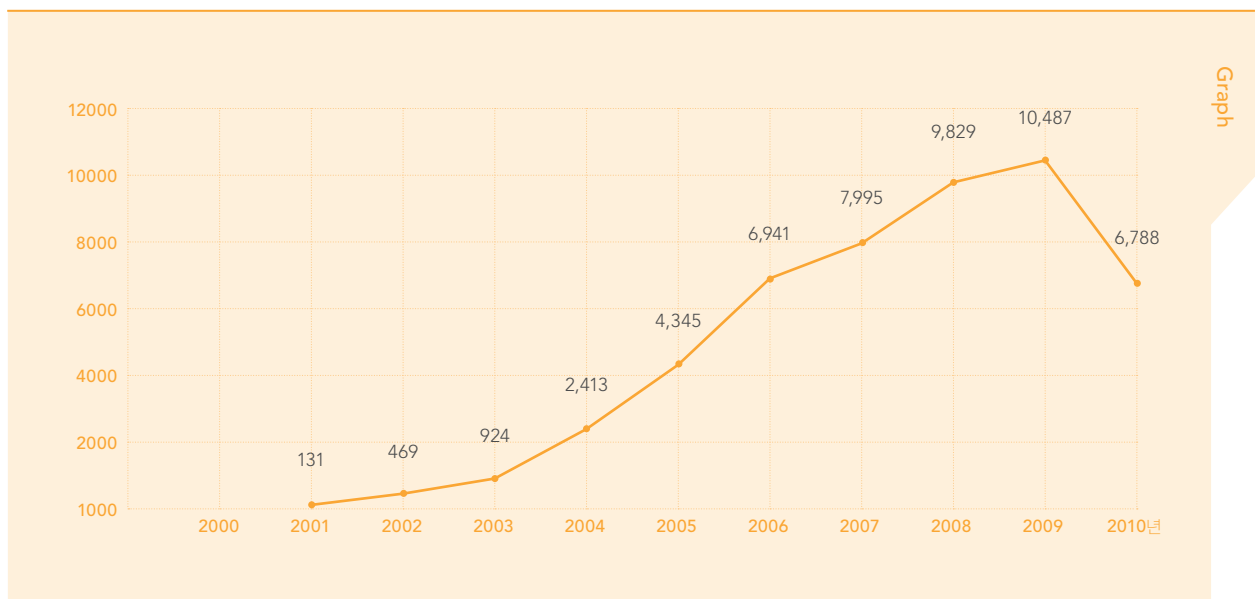
2010년 연도별 모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0년 연도별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외부감사인의 보고서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첨부된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의 2010년 12월 31일과 200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운영성과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재단의 이사장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특정목적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재단은 재무제표를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제정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지침서」 및 주석2에 기재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현금흐름표로 하고 주기 및 주식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부금수입의 경우 약정에 의거한 경우에는 발생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약정에 의한 권리·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현금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의 2010년 12월 31일과 200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그리고 현금흐름의 내용을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와 주석2에 기재된 회계처리기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최 윤 호
2011년 2월 22일

이 감사보고서는 2011년 2월 22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재단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제 11 (당) 기 : 2010년 12월 31일 현재
- 제 10 (전) 기 : 2009년 12월 31일 현재
-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

자산	과목	제11(당)기 금액	제10(당)기 금액
	I. 유동자산	34,986,600,642	41,144,223,610
	당좌자산	34,983,214,060	41,139,557,060
	현금및현금성자산	2,314,093,768	4,257,815,126
	단기금융상품	13,000,000,000	17,527,749,888
	단기매도가능증권	19,166,135,216	19,315,572,349
	미수금	71,048,070	26,700,997
	미수수익	303,421,983	-
	선급금	2,527,530	1,382,820
	미수법인세환급액	79,928,558	-
	선급비용	1,085,680	966,280
	기부물품	44,973,255	9,369,600
	재고자산	3,386,582	4,666,550
	상품	3,386,582	4,666,550
	II. 비유동자산	26,773,627,375	14,995,775,190
	투자자산	20,754,631,963	13,872,984,328
	매도가능증권	6,028,295,761	4,243,412,512
	만기보유증권	5,054,352,586	-
	보험자산	321,170,500	278,758,700
	아름다운가게출연금	9,350,813,116	9,350,813,116
	유형자산	4,177,513,845	52,503,462
	토지	4,017,517,801	
	건물	137,056,020	15,000,000
	감가상각누계액	(3,426,401)	(7,500,000)
	기타의 유형자산	148,742,123	147,692,123
	감가상각누계액	(122,375,698)	(102,688,661)
	무형자산	8,754,167	-
	소프트웨어	8,754,167	
	기타비유동자산	1,832,727,400	1,070,287,400
	보증금	1,832,727,400	1,070,287,400
자산총계		61,760,228,017	56,139,998,800



재무상태표

- 제 11 (당) 기 : 2010년 12월 31일 현재
- 제 10 (전) 기 : 2009년 12월 31일 현재
-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

부채	과목	제11(당)기 금액	제10(당)기 금액
	I. 유동부채	2,522,256,719	365,277,828
	단기차입금	2,400,000,000	
	미지급금	98,230,217	58,697,531
	예수금	13,166,170	12,673,420
	미지급법인세	1,563,949	265,986,877
	미지급비용	8,826,082	
	선수금	470,301	27,920,000
	II. 비유동부채	435,233,159	414,344,986
	퇴직급여충당부채	435,233,159	414,344,986
	부채총계	2,957,489,878	779,622,814
자본	I. 자본금	38,323,328,829	39,030,582,403
	기본재산	326,909,234	326,909,234
	기금	37,996,419,595	38,703,673,169
	II. 기타포괄손익	8,405,931,075	6,225,687,548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8,444,411,137	7,304,836,148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38,480,062)	(1,079,148,600)
	III. 이익잉여금	12,073,478,235	10,104,106,03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341,408,612	
	차기이월이익잉여금	6,732,069,623	10,104,106,035
	자본총계	58,802,738,139	55,360,375,986
부채와자본총계		61,760,228,017	56,139,998,800

운영성과표

- 제 11 (당) 기 : 2010년 12월 31일 현재
- 제 10 (전) 기 : 2009년 12월 31일 현재
-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

제약이 없는 순자산변동	과목		제11(당)기 금액	제10(당)기 금액
	I. 사업수익		9,538,509,799	13,014,124,513
	고유목적사업수익		(9,489,961,455)	(13,008,224,513)
		기금수입	7,618,896,260	10,603,244,170
		현물기부수입	143,997,225	384,145,178
		운영후원금수입	415,176,770	236,950,907
		이자수익	1,081,127,700	1,462,712,808
		투자자산(예금)처분이익		1,200,000
		배당금수익	199,603,500	280,739,450
		사업수입	31,160,000	39,232,000
		매출액	48,548,344	5,900,000
	II. 사업비용		8,571,398,749	12,317,097,510
		사업비	6,950,358,196	10,602,686,052
		일반관리비	1,621,040,553	1,714,411,458
	III. 사업이익		967,111,050	697,027,003
	V. 사업외수익		347,891,709	4,393,033,561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329,257,900	4,389,180,400
		유형자산처분이익	2,500,000	
		외환차익	180,529	197,890
		잡이익	15,953,280	3,655,271
	VI. 사업외비용		52,884,133	4,825,274,964
		이자비용	34,734,902	
		유형자산처분손실		14,226,325
		법인세등	17,203,441	451,581,380
		기금대체액	-	4,204,595,202
		투자자산처분손실	-	63,807,924
		기타의대손상각비	313,400	
		잡손실	622,289	91,064,133
		외환차손	10,101	

	과목	제11(당)기 금액	제10(당)기 금액
	Ⅶ. 제약이 해제된 순자산	707,253,574	
	운영비전출에 따른 제약의해제	707,253,574	
	Ⅷ. 제약이없는 순자산의증가	1,969,372,200	264,785,600
제약이 있는 순자산변동	Ⅰ. 기초순자산	45,256,269,951	38,308,571,308
	기본재산	326,909,234	326,909,234
	기금	38,703,673,169	34,499,077,967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6,225,687,548	3,482,584,107
	Ⅱ. 기말순자산	46,729,259,905	
	기본재산	326,909,234	326,909,234
	기금	37,996,419,595	38,703,673,169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8,405,931,076	6,225,687,548
	Ⅲ. 제약이있는 순자산의증가	1,472,989,954	6,947,698,643
	총순자산변동액	3,442,362,153	7,212,484,243
	Ⅰ. 기초순자산	55,360,375,986	48,147,891,743
	기본재산	326,909,234	326,909,234
	기금	38,703,673,169	34,499,077,967
	이익잉여금	10,104,106,035	9,839,320,435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6,225,687,548	3,482,584,107
	Ⅱ. 기말순자산	58,802,738,139	55,360,375,986
	기본재산	326,909,234	326,909,234
	기금	37,996,419,595	38,703,673,16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341,408,612	
	이익잉여금	6,732,069,623	10,104,106,035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8,405,931,076	6,225,687,548

기금현황

★ 표시의 기금은 기금 및 사업의 종결에 따라, 2011년 기금통합절차를 거쳐 기금의 전당으로 이관 예정입니다

공익과대안	기금명	사업영역(재단)	비고
	1%기금	공익과대안 위임	
	공익변호사기금	공감 사업 및 활동비 지원	
	공익인프라1%기금	공익과대안 위임	
	공익제보자기금	아름다운사람들 공익시상	
	공익출판기금	공익단체출판지원	
	국보디자인기금	공익단체를위한다자인나눔	★
	나눔으로아름다운세상기금	공익과대안 위임	
	내일을위한기금	비움과채움(공익단체활동가교육과재충전지원)	
	대안1%기금	공익과대안 위임	
	멀치한상자기금	아름다운사람들 공익시상	
	미래마당기금	비움과채움(공익단체활동가교육과재충전지원)	
	불로거행복나눔기금	공익과대안 위임	★
	소금창고기금	아름다운사람들 공익시상	
	신한의인후원기금	의사상자 공익시상	★
	심산활동가기금	아름다운사람들 공익시상	
	아나번서부택추모기금	공익과대안 위임	
	아우디파트로기금_공익인프라	공익단체기자재지원	
	의인기금	아름다운사람들 공익시상	
	지구사회1%기금	공익과대안 위임	
	탁아기금	활동가자녀보육지원	
	불뿌리의힘기금_공익	변화의시나리오(대안적공익활동지원사업)	★
	한국그린포스퍼프마중물기금	공익단체기자재지원	
	호민기우봉기금	비움과채움(공익단체활동가교육과재충전지원) 풍력에너지를발기여자에대한시상지원	
	혼자만잘살은무슨재민겨기금	마을작은도서관지원	
	EG기금	마을교육공동체지원	
	KT Wonderful Partners기금	비움과채움(공익단체활동가교육과재충전지원)	★
	KT나눔IT서포터즈지원기금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IT교육 지원사업	★
	KT풀뿌리단체정보화지원기금	공익단체기자재지원	★
	UBS기금	마을작은도서관지원	
	공익과대안캠페인기금	서해안기름유출지역복원사업지원	
	권경옥기금	공익과대안위임	2011년 4월 개설
미래세대	100+10기금	미래세대위임	
	고려대학교 KMBA기금	보육시설퇴소거주대학생교육비지원	
	교보생명희망장학기금	보육시설퇴소거주대학생교육비지원	★
	길위의희망찾기기금	아동청소년여행지원	
	김군자할머니기금	보육시설퇴소거주대학생교육비지원	
	김영덕하계장학기금	미래세대위임	
	김현중장학기금	보육시설퇴소거주대학생교육비지원	
	꿈꾸는나무기금	아동청소년문화체험지원	
	꿈을담는틀기금	소년소녀가장주거안정지원	
	꿈틀기금	경기도실업계고등학생에대한학업보조금지원	★
	녹색꿈나무기금	환경활동가자녀교육비지원	
	대덕테크노밸리기금	대전지역출신이공계성적우수대학생교육비 지원	
	동우화인캠퍼서투게더기금	저소득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렉서스꿈더하기기금	저소득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로템철길위희망기금	아동청소년여행지원	
	론스타푸른별기금	저소득고등학생교육비지원	★
	막무가내대장부기금	아동청소년여행지원	
	메가스터디기금	저소득고등학생교육비지원	
	무지개상자기금	아동청소년특기적성지원	
	미래세대1%기금	미래세대위임	
	박홍이휘스퍼링호프기금	미래세대위임	





기금명	사업영역(재단)	비고
발리네집기금	미래세대위임	
빈천지혜기금	미래세대위임	
사이버다임 작은시작기금	소년소녀가정주거안정지원	
샌더파랑새기금	소년소녀가정주거안정지원	
성도지엘상더기금	아동청소년문화체험지원	
소원우체통기금	아동청소년의소원이루기지원 - 청소년문신제거및시술지원	
소프트뱅크함께하는기쁨기금	저소득가정대학생단기어학연수지원	
솔기금	소년소녀가정주거안정지원	
신나는아이들기금	아동청소년문화체험지원	★
신성이앤지한길기금	보육시설외소거주공계대학생교육비지원	
아름드리기금	저소득성적우수고등학생교육비지원	
에쿠우스기금	교통사고유자녀대학생교육비지원	★
엠코행복보급자리기금	소년소녀가정주거안정지원	
오피스코리아기금	아동청소년스포츠활동지원	
이병행안나기금	저소득고등학생교육비지원	
이봉재박영임약속기금	보육시설외소거주대학생교육비지원 저소득고등학생교육비지원	
이재은임유경미래약속기금	미래세대위임	
이채원의갈아나눔기금	미래세대위임	
이철해어커거기금_미래세대	아동청소년문화체험지원	
이한태기금	소년소녀가정주거안정지원	
재현서현이의천사랑기금	미래세대위임	
정진권희망나눔기금	보육시설외소거주대학생교육비지원 저소득고등학생교육비지원	
제스프리희망열매기금	저소득고등학생교육비지원	★
제이엔케이히터행복나무기금	소년소녀가정주거안정지원	
주경아독기금	저소득고등학생교육비지원	
지혜양기금	미래세대위임	
징검다리기금	저소득고등학생교육비지원	
춘원당100년생각기금	미래세대위임	
카매니아기금	아동청소년여행지원	
큰사람기금	저소득중학생지원(교복/수학여행)	
투어익스프레스행복세상기금	아동청소년여행지원	
티맥스함께나눔기금	미래세대위임	
플무원푸른세상을여는기금	아동복지시설 생대정원 조성 및 소외아동 문화체험활동지원	
하나투어희망여행기금	아동청소년여행지원	
하라기금	아동청소년특기적성지원	
한국교직원공제회사랑희망기금	교통사고유자녀대학생교육비지원	
한국의대니서만들기금	청소년자발적사회문화활동지원	
한솔교육신한나라만들기금	공부방독후활동지원	★
행복한섬표기금	아동청소년문화체험지원	
현대모비스기금	교통사고유자녀고등학생교육비지원	
현대자동차천사랑기금	교통사고유자녀대학생교육비지원	
희망공장기금	아동청소년의소원이루기지원 - 청소년문신제거및시술지원	
ADT캡스소원우체통기금	아동청소년문화체험지원	
KB국민은행희망기금_미래세대	청소년자발적사회문화활동지원	★
KTF비지지기금	소외아동 및 청소년 IT 지원	★
관세청키다리아저씨기금	소년소녀가정주거안정지원	
김제동환상의짜장기금	아동캠프지원	
아름다운도보여행기금	미래세대위임	
자유투어아름다운여행기금	아동청소년여행지원	
김미경파랑새기금	실직가정대학생교육비지원	2011년 4월 개설
김재윤사랑기금	미래세대위임	2011년 1월 개설
피케이아이사랑기금	소년소녀가정주거안정지원	
머피컨텐츠반올림기금	저소득가정대학생단기어학연수지원	2011년 1월 개설
텐볼스토리수만휘기금	저소득고등학생교육비지원	
한국수출입은행함께하는다문화기금	국내거주 이주민 모국어책 지원	

빈곤과차별	기금명	사업영역(재단)	비고
	3M기금	장애아동청소년맞춤형보조기구지원	
	건강한이세상기금	저소득계층 치과진료 지원	
	나누리병원기금	홀로사는어르신을위한생계비(의료비)지원	
	당신의햇살기금	한부모여성가장건강관리지원	
	대웅제약 웃음이있는기금	노인낙상예방보조기구지원	
	더불어숲기금	국내거주이주민모국어책지원사업	
	마이너스건강기금	홀로사는어르신을위한생계비(의료비)지원	
	마지막강의기금	장애아동청소년맞춤형보조기구지원	
	박영미기금	빈곤과차별위임	
	빈곤1%기금	빈곤과차별위임	
	빛한줄기희망기금	단전(단전위기가구)전기요금지원	
	사트렌기금	한부모여성가장건강관리지원	
	선택생물기금	장애인지원	
	세피아행복만들기기금	장애아동청소년맞춤형보조기구지원	
	송진우기금	장애아동청소년맞춤형보조기구지원	
	송하원교수의책날개기금	국내거주이주민모국어책지원	
	아름다운미소기금	한부모여성가장건강관리지원	
	아름다운세상기금	한부모여성가장창업지원	
	엄홍길의길사랑기금	장애아동청소년여행지원	
	엔씨소프트 희망네트워크기금	장애아동청소년맞춤형보조기구지원	
	우리흙소핑다문화가정캠페인	다문화인식개선캠페인지원	
	은빛겨자씨기금	홀로사는어르신을위한생계비(의료비), 국배달지원	
	차별1%기금	빈곤과차별위임	
	책날개를단아시아기금	국내거주이주민모국어책지원	
	태평양제약홀로사는노인지원기금	홀로사는어르신을위한생계비(의료비), 국배달지원	
	풀뿌리의힘기금	장애아동청소년맞춤형보조기구지원	
	하인즈워드재단기금	다문화및이주민관련지원(혼혈아동지원)	
	행복한동행기금	장애아동청소년맞춤형보조기구지원	
	HHC사랑나눔 기금	저소득치매노인가구의생계보조금지원	
	KB국민은행희망기금	홀로사는어르신을위한국배달지원	★
	LG생활건강행복미소기금	한부모여성가장건강관리지원	
	SKT아름다운통화기금	장애아동지원	
	빈곤과차별 캠페인기금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이주비용 지원	
나눔문화	국제NGO연대기금	국제NGO연대사업 진행	
	기부문화연구소기금	기부문화에 대한 조사 및 연구사업을 위한 연구소 운영비	
	나눔교육기금	나눔교육	
	나눔문화1%기금	나눔문화위임	
	나눔씨앗기금	나눔교육	★
	류무종기부문화도서관기금	기부문화도서관 및 관련 연구출판사업 지원	
	변화의씨앗기금	비영리컨퍼런스 등 비영리역량강화사업	
	연꽃기금	상속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연구·홍보·출판사업	
	유한킴벌리기금	기빙코리아지원 외	
	해피빈기금	네이버 공동 공익포털사이트를 통한 지원	★
기타나눔	나눔의복덕방기금	지원이 필요한 곳과 지원하고자 하는 곳 중개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기금	이른둥이치료비지원	
	동불기금	공무상 사상피해를 입은 하위직 공무원 지원	
	미연이의수호천사기금	범죄피해자기족지원	
	발리네집기금_이른둥이	이른둥이치료비지원	
	슬픔그마음함께기금	재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재난 지원	
	아름다운영화인기금	청소년자발적사회문화활동지원 외	
	아름다운에프엔기금	사업추후확정	
	아름다운팔찌기금	소년소녀가장주거지원/장애아동청소년맞춤형보조기구지원 /변화의시나리오	
	연금술사기금	취약계층 청소년자립지원	
	우토로기금	일제강제징용 조선인 마을 우토로 거주권및 생존권 지원	
	유향숙의섬기기금	모현호스피스_지정기탁	★
	울이기금	저소득계층미숙아치료비지원	
	청년동지기금	청년NGO센타건립기금조성	★
	최달석목사님을위한추모기금	일본군 위안부 관련 미국 법정소송비 지원	★
	행복한동지기금	소외아동의유기동물 결연보호활동을 통한 정서프로그램 지원	
	휴머스기금	소외아동및시설지원	



	기금명	사업영역(재단)	비고
기금의 전당	희망제작소기금	희망제작소	★
	E-아름다운기금	재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재건 지원	
	SOS기금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곳을 위한 한시적 긴급모금	
	기타나눔캠페인기금		
	성우재은의행복나눔기금	이른둥이치료비지원	2011년 3월 개설
	박찬길기금	이른둥이치료비지원	2011년 3월 개설
	도움넷기금		
	그물코기금		
	토피아기금		
	로레알코리아기금		
	롯데리아기금		
	박고테기금		
	우리은행백두대간기금		
	그랜드데이블럼화기금		
	해피빈서비스기금		
	신한금융지주기금		
	아우디과트로기금		
	GS홈쇼핑무지개상자캠페인기금		

	기금명	모금액액	배분금액	기금잔액
공익과대안	공익인프라1%기금	241,192,667	140,054	539,957,696
	내일을위한기금	5,852,000	38,351,500	1,059,360,662
	한국그린포스트마중물기금	-	-	1,777,104
	탁아기금	16,603,000	88,402,900	102,188,645
	1%기금	1,136,916,913	1,011,460,299	5,898,974,553
	공익출판기금	2,393,450	18,686,280	6,484,487
	나눔으로아름다운세상 기금	94,650,452	-	394,214,676
	KT폴뿌리단체정보화지원기금	-	-	1,323,035
	공익번호사기금	495,595,885	510,930,548	780,526,521
	KT나눔IT서포터즈지원기금	-	-	921,033
	KT Wonderfull Partners기금	-	-	84,340
	폴뿌리의힘_공익	-	40,000,000	1,301,370
	호민가우봉기금	-	-	10,319,279
	아나반서부택주모기금	360,000	3,700,000	25,181,805
	아우디과트로기금_공익인프라	-	-	84,270
	대안1%기금	13,443,880	-	29,450,281
	혼자만잘살문무순재민겨기금	34,686,073	78,138,541	509,765,877
	의인기금	13,192,500	12,524,820	239,276,047
	소금창고기금	8,526,000	3,138,070	54,309,645
	심산활동가기금	222,000	3,138,070	17,033,289
	신한의인후원기금	210,000	2,499,151	7,088,989
	멸치한상자기금	-	-	715,094
	공익제보자기금	-	-	149,483
	UBS기금	-	-32,600	1,427,295
	공익과대안캠페인 기금	23,100	-	574,630
	EG기금	20,810,000	12,500,736	12,645,268
	지구사회1%기금	30,952,670	-	54,355,710
	미래마당기금	48,000	2,500,000	10,723,750
	블로그행복나눔기금	1,011,000	2,000,000	1,218,452
	국보디자인기금	-	1,600,000	708,166
미래세대	샘터파랑새기금	8,960,975	5,000,000	8,876,934
	미래세대1%기금	414,264,682	114,523,330	757,778,123
	빈천지혜기금	-	3,611,000	9,877,429
	춘원당100년생각기금	26,762,000	7,000,000	105,603,003
	티맥스함께나눔기금	7,820,000	3,626,500	22,158,266
	솔기금	226,755,189	66,865,956	1,906,780,122
	엔코행복보금자리기금	30,000,000	28,000,000	29,710,189
	이한태기금	-	10,000,000	17,004,390
	길위의희망찾기기금	168,361,430	38,517,098	843,844,923

기금명	모금금액	배분금액	기금잔액
하나투어희망여행기금	3,659,000	4,986,400	2,926,610
꿈꾸는나무기금	54,780,950	6,619,864	348,581,457
한솔교육기금	330,000	-	1,188,799
KTF비지지기금	1,227,000	-	3,822,591
한국의대내서만들기기금	11,086,000	16,915,018	55,083,189
오픈승코리아기금	4,743,060	68,007,340	93,733,557
소원우체통기금	61,622,963	40,702,725	354,738,421
하라기금	34,611,737	73,682,065	1,972,284,638
소프트뱅크함께하는기쁨기금	8,335,008	6,425,292	61,517,749
풀무원푸른세상을여는기금	11,988,500	-	96,468,672
김군자할머니기금	87,689,700	75,174,602	357,402,554
신성이앤지한길기금	40,985,000	22,182,220	83,021,707
대덕테크노밸리기금	520,000	14,177,736	1,086,696,235
징검다리기금	154,608,048	73,129,236	206,662,042
꿈틀기금	2,251,000	-	4,774,175
렉서스품다하기기금	79,418,401	55,571,750	50,227,035
아름드리기금	16,815,000	57,277,949	443,238,575
론스타푸른별기금	1,342,000	-	518,116,062
제스프리희망열매기금	-	-	4,059,728
메가스터디기금	1,500,000	-	4,619,618
주경아독기금	25,748,000	-	219,457,249
녹색꿈나무기금	7,890,000	34,358,200	18,633,269
현대모비스기금	122,805,294	77,601,000	209,183,404
현대자동차천사랑기금	1,700,000	29,099,096	45,911,938
에쿠우스기금	-	2,340,000	4,901,925
교보생명희망장학금기금	470,000	-	23,679,984
이병한나기금	330,000	-	2,939,767
이봉재박영암약속기금	-	38,680,810	29,445,266
ADT캡스소원우체통기금	75,000	14,982,740	16,699,346
투어익스프레스행복세상기금	360,000	812,000	240,331
로템철길위희망기금	20,000,000	17,346,715	21,027,744
막무가내막대장부기금	8,744,000	5,212,682	19,281,202
카메리아기금	-	-	9,316,016
동우화인캡 셰어투게더기금	1,000	10,000,000	26,632,275
지혜양기금	-	13,623,500	59,322,597
이재원의갈아나눔기금	21,084,210	-	71,093,876
큰사람기금	30,135,000	31,816,700	1,725,328
사이버다임 작은사랑기금	13,725,325	14,000,000	13,644,465
신나는아이들 기금	830,000	-	2,898,988
발레네집기금 - 미래세대	3,220,000	14,027,000	2,306,007
무지개상자기금	260,000	-	55,666
KB국민은행희망기금-미래세대	-	4,969	-
이철혜어카기금-미래세대	4,291,640	4,834,052	5,603,636
100+10기금	-	6,886,000	876,096
정진권희망나눔기금	12,000,000	3,930,000	18,670,137
꿈을담는틀기금	25,916,500	17,000,000	23,946,365
제이엔케이히터행복나무기금	10,000,000	9,000,000	9,218,089
희망공장기금	-	7,000,000	868,648
행복한침표기금	29,755,540	13,385,711	245,162,563
성도지엘섬터기금	138,517,740	21,707,810	129,230,391
재현서현이의천사랑기금	1,000	2,867,000	6,687,250
고려대학교KMBA기금	-	9,273,500	424,854
김현중장학기금	63,944,364	6,528,500	52,814,546
빅종이휘스퍼링호프기금	10,000,000	-	9,358,935
김영덕하계장학기금	50,656,800	-	47,112,952
이재은임유경미래약속기금	20,000,000	3,045,000	15,505,261
아름다운도보여행기금	8,727,300	-	7,902,803
자유투어아름다운여행기금	4,679,168	-	4,228,768
김제동환상의짜꿍기금	33,527,000	74,800	30,952,102
관세청키다리아저씨기금	11,586,514	-	10,840,085



	기금명	모금액	배분금액	기금잔액
	한국수출입은행함께하는다문화기금	40,000,000	-	36,103,653
	텐볼스토리수만회기금	15,000,000	-	13,519,435
	머피컨텐츠반올림기금	9,000,000	-	8,111,661
	피케이아이사랑기금	50,000,000	-	45,064,783
	한국교직원공제회사랑과희망기금	-	2,241,000	26,087,508
	* 녹색꿈나무 기금 - 2010 환경활동가자녀 교육비지원 사업비 34,358,200원 지출			
빈곤과차별	박영미기금	1,060,000	3,045,000	5,461,644
	빈곤1%기금	438,940,600	-	972,236,818
	빛한줄기희망기금	16,843,990	74,600	229,766,640
	KB국민은행희망기금-빈곤과차별	-	-	851,961
	당신의행살기금	93,926,798	41,712,294	907,933,733
	LG생활건강행복미소기금	129,630,246	113,220,894	149,233,170
	아름다운세상기금	276,903,160	889,469,013	1,420,272,915
	샤트렌기금	10,000,000	9,657,500	9,482,283
	아름다운미소기금	10,000	7,520,000	1,334,623
	행복한동행기금	43,402,170	32,982,379	219,559,900
	차별1%기금	142,112,938	4,819,400	292,485,471
	송진우기금	37,326,000	25,000,000	240,139,143
	엔씨소프트희망네트워크기금	133,000	6,600,000	95,663,912
	대웅제약웃음이있는기금	96,169,950	-	502,307,541
	엄홍길의길사랑기금	1,020,048	7,954,179	26,689,172
	세피아행복만들기기금	69,384,000	25,000,000	69,086,140
	SKT아름다운통화기금	13,556,582	-2,705,388	245,256,648
	은빛겨자씨기금	147,300,054	105,960,000	567,932,730
	선화샘물기금	25,222,000	-8,162,405	207,402,659
	태평양제약홀로사는노인지원기금	172,086,052	118,132,620	875,557,536
	마이너스건강기금	25,589,000	21,110,000	105,551,121
	HHC사랑나눔기금	6,935,000	-	71,908,767
	건강한이세상기금	41,415,000	-	225,263,853
	더불어숨기금	49,578,000	-773,446	368,126,484
	빈곤과차별캠페인기금	-	-	779,340
	3M기금	38,727,000	35,200,000	72,212,243
	책날개를단아시아	13,446,730	49,125,104	19,818,978
	하인즈워드재단기금	-	-	50,011,513
	마지막강의기금	-	-	209,474
	나누리병원기금	4,798,000	-	22,788,759
	우리홈쇼핑 다문화가정 캠페인기금	-	587,400	2,995,599
	물뿌리의힘기금	120,000	59,400,000	150,928,661
	송하원교수의책날개기금	2,680,000	-	2,487,705
	* 박영미기금 - 2010 실직가정대학생 교육비지원 사업비 3,045,000원 지출			
	* 엄홍길의길사랑기금 - 2010 아동청소년 여행지원사업비 7,954,179원 지출			
나눔문화	나눔문화1%기금	36,430,420	-	87,025,001
	해피빈기금	41,000	-	216,463
	기부문화연구소기금	61,204,800	91,251,675	192,764,847
	유한킴벌리기금	372,000	46,522,720	274,507
	류무종기부문화도서관기금	31,994,600	26,980,165	85,626,789
	나눔교육기금	64,989,940	54,935,368	117,485,962
	변화의씨앗기금	120,000	1,101,870	98,648,270
	나눔씨앗기금	6,381,131	20,580,274	1,775,940
	연꽃기금	997,000	2,468,210	88,537,793
	국제NGO연대기금	9,749,400	5,000,000	32,209,778
	* 국제NGO연대기금 - 2010 공익과대안 특별사업비 5,000,000원 지출			

기타나눔	기금명	모금금액	배분금액	기금잔액
	나눔의복덕방기금	8,922,100	11,117,880	119,903,096
	등불기금	4,736,000	-	350,516,209
	우토로기금	3,622,000	-	328,295,839
	휴머스기금	24,137,260	-	186,321,182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기금	747,313,167	851,853,045	754,599,001
	유향속의섬기금	1,000	-	1,004,897
	E-아름다운기금	4,387,000	21,390,010	20,841,577
	행복한둥지기금	7,863,000	-	94,000,245
	아름다운영화인기금	2,594,400	6,000,000	60,493,744
	아름다운팔찌기금	-	16,397,967	38,155,646
	희망제작소기금	10,000	-	404,800
	청년둥지기금	-	-	38,178
	최달석목사님을추모기금	646,000	-	4,819,110
	SOS기금	256,652,905	4,126,805	375,569,290
	희망의젖줄기금	120,000	-	166,499
	물이기금	60,000	12,000,000	292,861
	미연이의수호천사기금	28,090,630	16,000,555	21,200,641
	슬픔그마음함께기금	-	-	62,973
	발리네집기금_이른둥이	1,800,000	2,500,000	1,754,814
	한어머니를위한기금	-	-	27,600
	아름다운에프엔기금	45,235,561	-	320,554,629
	연금술사기금	-	960,062,500	57,375,669
		7,618,896,260		
	* 나눔의복덕방기금 - 이빠진 동그라미 특별지원 사업비 10,411,880원 2010 공익단체활동공간강권 지원사업비 382,000원 지출 * 아름다운팔찌기금 - 2010 변화의시나리오(대안적공익활동지원사업) 사업비 10,000,000원 2010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비 6,600,000원 장애인 선거참여 활성화 지원사업비 202,033원 지출 * 아름다운영화인기금 - 2010 청소년자발적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비 6,000,000원 지출			
현물기부	기금명	모금금액	배분금액	기금잔액
	현물기부기금	143,997,225	107,343,570	46,023,255

지원단체 목록

공익과대안

1. 변화의시나리오·새로운 컨텐츠의 대안적 공익활동 지원사업 ▶ 총 34개 단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 쿼어아카이브 구축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시민들이 만드는 정보공개 아카이브,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한 공익정보아카이브 구축 환경교육센터 기억과 구술을 통한 한국환경교육운동의 역사적 재구성 및 공익아카이브 구축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생명을 담은 토종씨앗 함께 지켜요 풀씨모임 지렁이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하면서 '그린이웃'되기 Burma Action 미얀마 지역사회에서 다시 피는 주민의 힘, 조직화의 힘, 연대의 힘 ODA Watch 정의로운 개발원조를 위한 아시아연대 참여연대 동북아군비동결 캠페인 '퍼시픽 프리즈'와 평화국가 만들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नेपाल 내 사회적기업 '함로' 설립 및 운영 풀뿌리사람들 풀뿌리가 만드는 착한마을, 마을품앗이 은행과 마을기업 인큐베이팅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풀뿌리참여과정으로 시작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나눔과미래 뉴타운재개발지역 주민조직 지원, 주민상담사 양성 및 대안개발 서포터즈 양성 성서공동체 FM 소리를 창조하는 교육 '라디오야 놀자' 이주노동자의방송MWTB 다국어뉴스 평화박물관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트라우마 힐링프로그램 향편 티베트, 낯설은 진실 프로젝트 2011 KIN(지구촌동포연대) 사할린 '코레이스클럽' 희망프로젝트 사할린 한인묘지 실태조사 사업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게이노래문화 육성프로젝트 '쌍쌍게이2' Woori Migrants Association(방글라데시 이주민 공동체) 더불어 함께하는 삶, 이주민의 인권과 평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 생존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젠더 감수성교육 더체인지 사회적 질문에 관한 해법을 찾는 씽크카페 개최와 소셜아카이브 플랫폼 구축 시민환경정보센터 한국환경운동의 역사, '공해추방시민운동' 아카이브 구축사업 한국여성민우회 식당노동자에게 존중을, 인권이 만든 밥 에너지정의행동 핵없는 아시아를 위한 아시아 시민사회연대, 2010 핵안보정상회의 시민사회포럼 구성 여성환경연대 도시 된장녀들의 유쾌한 반란 '레알 된장녀 프로젝트'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스티로폼 재활용을 통한 도시텃밭 가구기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아시아 한국기업 인권피해자 희망찾기 프로젝트 도봉시민회 시니어, 지역에 데뷔하다 민중의집 지역에 기초한 생활 속 협동커뮤니티와 네트워크 협동도서관 만들기 익산참여연대 지역을 바꾸는 시민참여 정보공개운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변화의 핑크 트리아앵글 프로젝트' '낯은 곳에서 들리는 무지개 하모니' 생각나무BB센터 우리는 하나야, 주춧돌(이주민이 직접 만드는 다문화 교육교재) 평화네트워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영문콘텐츠 사업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노동자 치유를 위한 글쓰기

2. 게이미폰서·공익단체 홍보사업, 모금, 네트워크 지원사업 ▶ 총 18개 단체

평택평화센터 평택미군기지 소개 홍보동영상 동성애자인권연대 청소년 성소수자인권증진을 위한 활동 '레인보우스쿨' 만들기 지역문화공간 더불어숲 통하라 오프라인 날개 달고 주민 속으로 한국여성민우회 풀뿌리가 쑥쑥 지역여성활동가 워크숍 관악주민연대 2010 지방선거 좋은 정책 만들기 워크숍 및 매뉴얼 제작 부산여성회 연제지부 지역주민이 함께 준비하는 선물 어린이 잔치날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홈페이지를 통한 후원간 네트워크 활성화와 성금모금 확대사업 한국청년연합(KYC) 청년 유권자를 위한 정책총회 및 투표참여 캠페인 녹색연합 점박이 물범 친구들의 이야기 울산인권운동연대 10주년기념 심포지움 인권, 지역에서 길을 묻다 광주장애인권포럼 장애인인권보장을 위한 세상만들기 에너지정의행동 에너지정의행동 10주년 사진집 발간 및 기념행사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풀뿌리 사회적 경제활동 주민 지도자대회 수성주민광장 공동체라디오 인터넷라디오방송 만들기 함께하는 장애인학부모회 장애인인식개선 사진공모전 따뜻한 밥한끼의 권리캠페인단(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노동자가요제 와동작은도서관준비모임 와동작은도서관 건립홍보 및 후원회원 모집사업 대안문화공간품&패다고지 울산청소년 예술,인문학교 '다다프로젝트' 마을n사람들 청소년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주민홍보 및 단체간 네트워크 협력사업

3.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 총 19개 단체

경남문화예술센터 농촌여성예술인을 키우는 2010 우리마을 학교 교육문화복지센터 별과민들레 선부2동에 꽃이 피었습니다 군포시민의모임 상상하면 마을이 즐거워진다! 달팽이미디어도서관 미디어로 마을을 디자인 하다 동자동사랑방 쪽방주민의 즐겁고 신나는 문화체험 교육사업 마포공동체라디오마포FM 다같이 즐겨보자 로하스(LOHAS)! 예고생태교육 놀이마당 부산녹색연합 도시에서 생태적 삶을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만들기 부산시민발전소 부산응용마을공동체를 위한 교육과 문화행사 진행 부천새시대여성회 제1회 마을학교 초대있는 부모, 인문학으로 Being하기, Doing하기 아름다운공동체 광주시민센터 1회 풍영정천 공동체학교 산들바람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연한마을 자연학교 어린이도서관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공교육에서 행복하기 여럿이함께하는동네야놀자 소통과 어울림 동네학교 웅달샘친구들(노원

골사람들) 착한 마을을 꿈꾸는 ‘노원골 마을 학교 만들기’ **울진숲길** 울진지역 생태문화해설서 발간과 생태문화안내자 교육 **충촌마을어린이도서관짜장**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마을공동체 참여자치나눔의공동체광진주민연대 늘푸른아가 데미 **한국여성의전화** 왓지저겔! 난리법석! 성평등한 마을문화 만들기 **희망웅상** 희망여기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주민 동아리에서 시작하는 돌봄 마을 만들기

4. 마을작은도서관 지원사업 ▶ 총 16개

고양시작은도서관협의회 난곡주민도서관새숲 달팽이미디어도서관 대구북구여성회부설 어린이도서관 책마실 해들마을 어린이도서관 도토리어린이도서관 들꽃방어린이도서관 들꽃이야기작은도서관 양산여성회 동무동무씨동무작은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어린이도서관연구회광주지부 책돌이도서관 열린사회동대문시민회부설 꿈틀어린이도서관 작은문화공동체다솔 다솔도서관 진주여성회 달팽이어린이도서관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초롱이네도서관

5. 공익단체 기자재 지원사업 ▶ 총 21개 단체

고난을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여성회 대전동화읽는어른모임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마들주민회 복합문화공간아트홀 소풍 부산인권상담센터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성남여성회 심장동주민센터해남방 포항동화읽는어른모임 어울마당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성영상공동체핀다 연분홍치마 오산여성회 일다 장애인아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천안여성회 청소년의망공동체 숲 포항KYC

6. 공익단체를 위한 디자인나눔 지원사업 ▶ 총 20개 단체

경기복지시민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군포여성민우회 부산청년회 생태보전시민모임생명그물 수원여성회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아힘나운동본부 안양나눔여성회 열린사회강동송파시민회 자원순환시민센터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자치나눔의공동체 광진주민연대 청소년희망공동체 숲 충북여성민우회 한국동물복지협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함안군농민회 행의정감시연대

7. 공익단체 활동가 네트워크 지원사업 ▶ 총 10개 단체

녹색연합부설 녹색사회연구소 미디어액트 비폭력평화물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희망세상

8. 공익단체 활동가 교육과 재충전 지원사업 ▶ 총 11개 단체소속 19명

알짜마을어린이도서관외 전북여성단체연합 셋넷학교 광주전남녹색연합 꿈틀자유학교 부산여성회 시민자치문화센터 녹색교육센터 녹색연합 장애여성공감 새사회연대

9. 공익단체 활동가 건강권 지원사업 ▶ 총 44개 단체소속 88명

가톨릭환경연대 경남여성회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관악사회복지 구로건강복지센터 국제외국인센터 군산여성의전화 기업책임시민센터 녹색연합 대자연 문화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산돌학교 서울환경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아시아의창 안양나눔여성회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영상공동체핀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열린사회동대문시민회 울산여성회 이주노동자의방송MWTB 이주민과함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지구촌사랑나눔 창원여성의전화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로하스협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마음야학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정의 해년공부방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ODA Watch

10. 공익단체 활동가 보육비 지원사업 ▶ 총 31개 단체소속 44명

경남여성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구로건강복지센터 구로시민센터 기업책임시민센터 꿈틀자유학교 나눔과 미래 난곡주민도서관새숲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구KYC 대자연 대전환경운동연합 무력무력도서관 물포럼코리아 부천환경교육센터 서울환경연합 성남여성회 성남평화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울산여성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환경정의 희망세상

11. 환경활동가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 총 15개 단체소속 17명

강남서초환경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녹색연합 녹색교육센터 대전충남녹색연합 녹색연합 사람과마을 서울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한국로하스협회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정의

12. 아름다운사람들 공익시상 사업 ▶ 총 3개 분야 3명

심산활동가상 이미경(마을N도서관 대표) 민들레홀씨상 이득형(위례시민연대 운영위원장) 빛과소금상 양시경(前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

13. 아름다운재단 10주년 기념사업

아름다운재단 10주년 특별지원사업 - 이주노동자의방송 MWTB

14. 공익과대안 특별지원사업 ▶ 총 2개 단체

국제NGO연대기금 특별지원사업 - 희망제작소

변화의 시나리오 특별지원사업 -참여연대 최자생계비 한달나기

미래세대

1. 소년소녀가정 주거 지원사업 ▶ 총 186세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정의 체납임대료와 연간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 이 사업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협력하여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2. 아동청소년 소원이루기 지원사업·청소년 문신제거기술 및 자립지원사업 ▶ 총 17명

* 이 사업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와 협력하여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3.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 ▶ 총 148개 기관 및 지역아동센터 155명

* 이 사업은 전국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하여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4. 보육시설 퇴소·거주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총 34명

5. 교통사고유자녀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총 11명

6. 교통사고유자녀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총 10명

7. 실직가정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총 36명

8.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총 20명

9. 성적우수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총 8명

10. 대학생단기어학연수 지원사업 ▶ 총 3명

11. 아동청소년 문화체험 지원사업 ▶ 총 35개 단체

가람지역아동센터 간디공동체 경산지역아동센터 경상북도장애인재활협회 경상북도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 꽃다지지역아동센터 꿈쟁이지역아동센터 김해사랑지역아동센터 낮은울타리지역아동센터 내외지역아동센터 늘사랑지역아동센터 동상지역아동센터 북면행복한지역아동센터 불암지역아동센터 비탈에선나무지역아동센터 사거리지역아동센터 사랑샘지역아동센터 삼성지역아동센터 성남우리공부방지역아동센터 신백아동복지관 에스더학교지역아동센터 예람지역아동센터 연일참사랑지역아동센터 예그린지역아동센터 예산군지역사회복지협의회 온누리지역아동센터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참교육복지연대 팔복동지역아동센터 평택나눔지역아동센터 평화3000 푸른꿈지역아동센터 홍성YMCA 홍익지역아동센터

12. 아동청소년 스포츠활동 지원사업 ▶ 총 15개 단체

경안신육원 꿈누리방과후아카데미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늘푸른지역아동센터 대구아동복지협회 부윤지역아동센터 비전지역아동센터 생명샘지역아동센터 서울SOS어린이마을 수안보지역아동센터 신안보육원 엄마사랑지역아동센터 요셉의집 충북재활원 한누리지역아동센터 화정종합사회복지관



13. 아동청소년 특기적성 지원사업 ▶ 총 7개 단체

꿈망울단지공부방 마들창조학교 세움공부방 신나는공부방 우리자리공부방 햇살교실공부방 회년공부방

* 이 사업은 전국공부방협의회와 협력하여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아동청소년단체 지정기탁 - 한양탁아소, 데레사의집

14. 아동청소년 여행 지원사업 ▶ 총 17개 단체

광명YMCA법씨학교 사라지는 것 들을 찾아서 꿈꾸는아이들의학교(청소년대안교육공간꿈) 함께/나/올레! 마들사회복지관 역사의 도시 경주를 여행하는 탐험가들을 위한 안내서 부산금정청소년수련관 길따라 꿈따라 새터민 청소년그룹홈 가족 대한민국 옛보기 세화주택 사춘기 소녀들의 천방지축 사춘기 극복작전 수원칠보산자유학교 내발로 걷는 우리땅 씨튼 해바라기의집 청소년들의 걷기여행을 통한 '나세우기' 프로그램 지수들꽃지역아동센터 탐나는도다!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싱송생송한 우리들의 솔직발랄한 여행 고양열린청소년쉼터 중국에서 세계를 만나다 성미산청소년교육활동연구회 어린이, 마을을 여행하다 탈학교청소년네트워크 학교너머 학교 밖을 넘어 세상과 만나다 1318 Happy Zone 행복스케치 이 시대 장인정신을 찾아 떠나는 일본 장인문화탐사대 더불어가는 배움터 길 사진을 테마로 한 슬로시티여행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시각으로 바라보는 동그란 세상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두리하나 아름다운 동행

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 총 10개 모듬

늘해랑 삼각산 역사의 현장에 선 거꾸로 역사탐험단 샘골파파라치 생골파파라치 에코유스클럽(Eco-Youth Club) 청년학생 기후에너지캠프 석유없이 2박3일 작공캠 청소년 다큐영화제작사업 저공비행 저항을 공부하는 비행청소년들의 모임 저공비행 청영 지역탐사 초아 언어민주주의 희망을 깨우다 한빛스탠바이큐 아름다운 은빛영상 평화이음이 평화를 품에 안은 아이들 Teenager Artist Group 淸 문화예술공동체 淸 3회 전시

16.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



—

72

빈곤과차별

1.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보조기구 지원사업 ▶ 총 80명

* 이 사업은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2. 한부모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 총 83개 단체 200명

경남여성회 중곡종합사회복지관 가락종합사회복지관 강릉종합사회복지관 거창지역자활센터 경기군포지역자활센터 경기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경기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경남거제지역자활센터 경북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군산지역자활센터 군포시가야종합사회복지관 김해지역자활센터 꿈나무아동복지관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다비다모자원 대구학산종합사회복지관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지역자활센터 동명복지재단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마포지역자활센터 만덕종합사회복지관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만월종합사회복지관 문촌7사회복지관 반포종합사회복지관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사랑의동지세림복지재단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서산석림사회복지관 서울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서울강서방화지역자활센터 서울강서지역자활센터 서울관악봉천지역자활센터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서울구로샐터지역자활센터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시영종합사회복지관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안심종합사회복지관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재단대구종합사회복지관 연무사회복지관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와치종합사회복지관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원주종합사회복지관 원주지역자활센터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이화여자대학교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인천남동지역자활센터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전북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정읍지역자활센터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창동종합사회복지관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첨단종합사회복지관 춘천지역자활센터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태안지역자활센터 평화모자원 포천나눔노인복지센터 포항학산종합사회복지관 학산종합사회복지관 한솔종합사회복지관 황금종합사회복지관 희망모자원

3. 국내거주이주민 모국어책 지원사업 ▶ 총 20개 단체

간디문화센터 대전이주외국인무료진료센터 우리함께 농촌이민여성센터 간디공동체 이주민노동인권센터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리산생명연대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마산종합사회복지관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학산종합사회복지관 기양7종합사회복지관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장선종합사회복지관 공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홀로사는 어르신 국배달 지원사업 ▶ 총 84개 단체 3,617명

거창군살의쉼터노인복지관 대전동구노인종합복지관 동두천시노인복지관 마산금강노인종합복지관 동산노인복지관 음성군노인종합복지관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유성구노인복지관 강남구노인정보센터 과산군노인복지관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은평구립역촌노인복지센터 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구립종로노인종합복지관 일산노인종합복지관 동구노인종합복지관 계양구노인종합복지관 춘천시립노인복지관 의왕시아름채노인복지관 서천군노인복지관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 서초구립양재노인종합복지관 동구노인복지관 진해노인종합복지관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동래구노인복지관 진천노인복지관 제천시명락노인종합복지관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영도구노인복지관 의왕시노인복지관 사랑채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구립역삼노인복지센터 안양시노인복지센터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 계룡시노인종합복지관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태안군노인복지관 송산노인복지관 나주시노인복지관 중구노인복지관 구립약수노인종합복지관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 문수실버복지관 중마노인복지관 서구노인복지관 금암노인복지관 동여수노인복지관 무주노인종합복지관 해남노인종합복지관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고흥군노인복지관 안성시노인복지관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북구노인종합복지관 여주시노인복지관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연천군노인복지관 수정노인종합복지관 동구노인복지관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보령노인종합복지관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서원노인복지관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꽃밭정리노인복지관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청원군노인복지관 충주시노인복지관 파주시노인복지관 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

5. 홀로사는 어르신 생계비/의료비 지원사업 ▶ 총 50명

* 이 사업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와 협력하여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6. 노숙인축구단 희망FC 지원사업 ▶ 총 1개 단체

노숙인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기타나눔

1. 범죄피해자 및 피해가족 지원사업 ▶ 총 8명

2. 재난재해피해자의 경제적 심리적 재건지원사업

3. 공익을 위한 중개사업

허영만화백 노숙인 지원사업 - (현물지원 : 매트리스, 방한자켓 및 세면도구 1,000set)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구세군브릿지센터 만나샘상담보호센터 웅달샘상담보호센터 햇살보금자리상담보호센터 밥상공동체(원주)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 울산실직노숙인종합지원센터 광주무등쉼터

4. 문화나눔 ▶ 총 46개 공연 2,458명

문화나눔 공연명 -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학전어린이무대 <고추장 떡볶이>, 콘서트 <아이러브뮤직>, 연극 <갯스펠>, 연극 <엘리모시너리>, 연극 <바나야저씨>, 연극 <비밀경찰>, 영화관 속 작은학교 <홀라겔스>, 영화 <파주>, 전통연희 <판>, 파사무용단 <웃기>, 사다리움직임연구소 연극 <왕벚나무동산>, 풍자무용단 무용 <일회용 히어로>, <강아지똥>, 뮤지컬<락 시티>, 라이브콘서트 <아이러브뮤직 vol.5>, 김덕수의 전통연희 상설공연, 최성욱 Meta Dance Project <사이버 스페이스 오딧세이 21>, <신춘문에 단막전>, <아시아연출가 공연 워크샵 페스티벌_한국,중국, 일본>, 이경은 리케이댄스 <이것은 꿈이 아니다>, 윤호간 콘서트 <피아노와 이빨>, 국립창극단 <준항 2010>, 국립창극단 <청>, 연극 <낮병동의 매미들>, 댄스컴퍼니 더바디 <바다가 죽어서 남긴 시선>, 극단 산수유 <기묘여행>, 콘서트 <아이러브뮤직>, 뮤지컬 <분홍 병사>, 서울시 합창단 정기 연주회 <칼 오르프의 카르미나 브라네 비보이와 만나다>,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 조아뮤지컬 컴퍼니 <에디슨과 유령탐지기>, 김덕수의 전통연희 상설공연 <PAN-판>, 무연극 <광대들>, 풍자음악극 <그놈이 그놈>, 극단 민중 <6.25 전쟁과 이승만>, 극단 물리 <레이디맥베스>, 전미숙무용단 <전미숙의 울지마세요>, 김영희무트댄스 <기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정회현 제영만 제이엔케이히터(주)_임직원 제이법 조각현 조각철 조각명 조각미 조각석 조경세 조경속 조경아 조경옥 조광대 조근만 조기훈 조길현 조남곤 조남화 조대연 조덕숙 조동욱 조동찬 조라정 조록주 조명래 조명희 조문숙 조미경 조미래 조미옥 조민영 조민정 조법석 조병규 조병석 조상호 조선영 조선희 조성숙 조성업 조성연 조성윤 조성재 조성진 조숙임 조순기 조순애 조순자 조순혜 조승희 조아라 조아영 조아현 조연 조연실 조연용 조영관 조영남 조영미 조영민 조영빈 조영서 조영숙 조영옥 조영자 조영주 조영진 조영훈 조옥현 조원재 조용근 조용덕 조용원 조우성 조우제 조운경 조원석 조원식 조윤실 조윤희 조은미 조은숙 조은주 조은현 조은혜 조인래 조인숙 조인향 조일규 조일라 조임갑 조자룡 조재신 조재찬 조재철 조재춘 조정미 조정민 조정연 조정윤 조정현 조준영 조준희 조중현 조지문 조지현 조진만 조진하 조진현 조진희 조창현 조철행 조철제 조춘옥 조태미 조태영 조필순 조항미 조현립 조현미 조현서 조현수 조현아 조현지 조현진 조현택 조혜정 조혜향 조홍래 조효민 조훈 조훈구 종경숙 좌민수 주경희 주근호 주름 주명철 주미연 주민철 주상숙 주소연 주소영 주소자 주영석 주영수 주우용 주은옥 주익철 주재균 주재남 주정식 주지환 주진형 주창희 주항미 주현식 주현옥 주현충 주형건 주형섭 중앙언론연구원 지상열 지상우 지상원 지승근 지예스송산수빌 지영준 지용수 지윤희 지인자 지정미 지창현 지재호 지춘희 전국12538044 진명조 진민수 진민정 진민현 진병재 진상운 진소희 진수명 진운정 진인용 진일 진일정 진정현 진주완 진한승 진형섭 차광준 차국찬 차기철 차선용 차성원 차영록 차유진 차인순 차재훈 차정숙 차정환 차형희 차현진 차혜원 차홍조 채경옥 채민 채민경 채민진 채영중 채옥희 채원영 채장석 채정석 채지는 채지혜 채진석 채형란 채희석 채희선 천경희 천민주 천승이 천실 천영길 천윤경 청조동물병원이강 청조빌딩정점갑 최건기 최경민 최고은 최광기 최광석 최광열 최근범 최근식 최기보 최기영 최기창 최기호 최낙선 최낙중 최내운 최달용 최대규 최대식 최대한 최덕수 최덕희 최동선 최동원 최동현 최동희 최명길 최문수 최미경 최미림 최미애 최미영 최미정 최미희 최민규 최배성 최병구 최병모 최병선 최병식 최병영 최병용 최병일 최병학 최병한 최보희 최봉 최부건 최상규 최상림 최상옥 최서윤 최서준 최석준 최선미 최선희 최성규 최성렬 최성순 최성호 최성희 최세림 최세운 최소진 최수미 최수연 최수진 최수희 최수옥 최순희 최승각 최승규 최승완 최승용 최시영 최안희 최영경 최영근 최영를 최영범 최영복 최영숙 최영식 최영호 최예솔 최예진 최원근 최용석 최용준 최용호 최우석 최원준 최유리 최유미 최유정 최유진 최윤경 최윤수 최윤영 최윤희 최을 최은경 최은서 최은실 최은영 최은정 최은진 최은희 최이영 최이용 최익수 최익순 최인관 최인정 최일용 최일초 최임식 최재순 최재식 최재엽 최재우 최재원 최재홍 최정민 최정원 최정주 최종민 최종선 최종숙 최종철 최종현 최중훈 최주미 최준식 최준진 최지근 최지선 최지윤 최지는 최지향 최진 최진문 최진석 최진선 최진숙 최진영 최진주 최창근 최창기 최창목 최창준 최창현 최창호 최철호 최춘옥 최충기 최치영 최대한 최만규 최학규 최학림 최향숙 최현민 최현순 최현영 최현우 최현용 최현중 최현진 최형덕 최형민 최형석 최혜련 최해진 최호성 최호현 최홍규 최홍립 최홍철 최화영 최환옥 최효정 최효진 최효찬 최훈 최훈철 최홍섭 최희경 최희정 최희현 추은용 추유선 추혜윤 충정 케이엔피텍스 코리아크레딧뷰로(주) 탁덕명 탁동범 태영컴퍼니트 태재훈 토글여성단체 통장잔액 명등급식 표승중 표해영 플로우데크(주) 피승범 하경희 하도용 하동연 하미혜 하상혁 하승수 하승희 하영조 하웅진 하유정 하은정 하은혜 하인호아동들기 하장협 하재영 하정민 하정혜 하정화 하주연 하준태 하지원 하태운 하현희 하영근 하영미 하영심 한광석 한국3M하이테크 한국불교대교 한국스마트카드 한규숙 한규일 한근수 한금숙 한기태 한동혁 한매명 한명란 한미경 한미란 한미성 한미수 한봉근 한빛샘 한상기 한상봉 한상숙 한상엽 한상현 한상원 한사행 한선에 한성수학전문학원 한성호 한소영 한수섬유(주) 한수진 한승수 한연규 한영실 한영애 한영주 한영훈 한웅진 한윤정 한은광 한은주 한은희 한장미 한재권 한재수 한재용 한재윤 한정한 한지민 한지숙 한지영 한지는 한지하 한창오 한창민 한창혁 한태윤 한태이 한태영 한택식 한혁섭 한화윤 한희숙 함순호 함승용 함은혜 함중오 함진수 허기현 허미영 허민석 허복들 허봉서 허석곤 허선 하성남 하성수 하성훈 하세정 하소라 허수경 허수진 허승광 허영란 허영문 허영애 허은서 허인진 허정미 허정아 허중근 허지는 허지에 허진서 허철 허대경 혁민맘 헝기옥 현동업 현동호 현상주 현승준 현옥희 현우영 현정에 현중남 현중택 현주호 형계영 호예림 호준환 호진석 홍관수 홍기석인미숙 홍기원 홍기호 홍길수 홍나영 홍두완(새들넉교회) 홍란영 홍만식 홍미경 홍미순 홍상식 홍상원 홍상희 홍석기 홍성근 홍성길 홍성대 홍성백 홍성원 홍성욱 홍성재 홍성정 홍성진 홍성희 홍수영 홍수희 홍수자 홍순근 홍순자 홍승미 홍승완 홍양표 홍여일 홍영기 홍영선 홍용철 홍유경 홍유식 홍유진 홍윤택홍준택 홍익락 홍정민 홍종민 홍종진 홍종화 홍지영 홍지는 홍창우 홍효선 홍효순 홍희정 황 신 황기혜 황규희 황길순 황동현 황두성 황문성 황미란 황미숙 황민정 황보연 황삼정 황상규 황상순 황상희 황석선 황석현 황선기 황선희 황성혜 황성한 황세희 황세희 황수환 황순교 황순익 황순중 황승현 황신하 황연정 황영명 황영미 황영선 황영순 황유진 황윤경 황유익 황은미 황은숙 황은하 황은희 황인규 황인원 황인탁 황재만 황중수 황중현 황지선 황지현 황지훈 황찬민 황찬영 황창수 황태연 황학식 황학성 황해상 황해원 황현영 황현주 황형춘 황형준 황호성 황호연 황효성 황휘 황희권 황희범 황희서 황광더하기하나 힘센여자 aaa Alvuja(이종현) HYONS,QUAT KAT kimsookhee LG전자 MC연구소 개발 3실 Organ-icpow seonil82김선 SPLLEAU 12533824 193651365 (사)한국패션소재협회 (총원상사)장연 (주)광양청예 (주대건내츄럴 (주)도움과나눔 (주)머피컨텐츠 (주)메모넷월드 (주)삼정해운 (주)스타벅스코리아 (주)씨앤씨 (주)엠제이이엔티 (주)엠플러스컨설팅 (주)유니온티앤씨 (주)이지 (주)자유투어 (주)케이메트 (주)코리아엔터프라이즈인스티튜트 (주)텐볼스토리 (주)피케이아이 (통인당한의원)최윤 @U_heung 2010_인권법캠프 2학년2반전체



기부자님 잊지마세요!

당신은 아름다운재단의 자랑입니다



자르는 선 ✂

붙이는 곳

나는 아름다운 1%나눔을 신청합니다

기부자 정보 *

이름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주소 _____
직업 _____ 휴대폰 _____
이메일 _____

기부내용 *

기부영역 ☐ 공익대안 ☐ 빈곤차별 ☐ 미래세대 ☐ 나눔문화
기부금액 월 _____ 원
납부방법 ☐ 신용카드 ☐ CMS 자동이체



| ✨ 기부안내 및 문의 02-766-1004 |

신용카드납부 카드사 _____ 카드번호 _____
유효기간 _____
CMS 자동이체 출금은행 _____ 계좌번호 _____
예금주 _____ 예금주 주민번호 _____
출금일 매월 ☐ 1일 ☐ 25일

본인은 아름다운재단에 CMS출금 자동이체를 이용하여 기부금을 납부하겠습니다. 만일 출금과 관련하여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름다운재단과 협의하여 조정하며 출금은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이름 _____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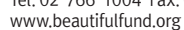
붙이는 곳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1.04.01~2013.04.01

광화문우체국 송인
제40121호

□ □ □ - □ □ □



아름다운재단 나눔가계부 🍃

발행일	2011년 6월 15일
발행인	박상중
편집인	윤정숙
기획	아름다운재단 기획홍보국
디자인	slowalk
주소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63-2 <가회동>
전화	02-766-1004
팩스	02-730-1243
홈페이지	www.beautifulfund.org
이메일	give@beautifulfund.org

아름다운재단 사무국 🍃

기획홍보국	모금배분국	연구교육국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팀
국장 서경원	국장 공미정	국장 황선미	팀장 정은주
부서장 김아란	모금	부서장 전현경	김윤지
강민경	부서장 최소영	김미정	이영주(육아휴직)
김진아	한태윤	김혜민	전서영
김향미	김현아	이미영	
권연재	박혜윤	임주현	
두은정(육아휴직)	송자영	희망가계팀	공익변호사공감
임동준	성혜경	팀장 배현주	박영아 변호사
정세화	이지원	송혜진	소라미 변호사
홍효순	정경훈	장윤주	윤지영 변호사
	전영대	홍리재희	염형국 변호사
	최민석	운영관리국	장서연 변호사
	배분	국장 연미영	차혜령 변호사
	부서장 김진아	김정수	정정훈 변호사
	김지애	박만선	황필규 변호사
	박정옥	정다정	전은미
	이선아	최희연	안주영
	임오윤	이정아위원	
	장정원		
	정홍미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너는 함께 만든 10년

아름다운재단이 어느덧 열 살이 되었습니다.
이웃을 위해 월급의 1%, 재능의 1%, 용돈의 1%를 건넨
여러분이 있었기에 이만큼 자랄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이제 새로운 10년을 준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시민과 공익을 잇는 아름다운 다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0 ANNUAL REPORT 아름다운재단 나눔가계부

10th Anniversary

